

# 예멘 統合 事例研究

1993. 12

金 國 新(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 요 약

빈 면

## 第 I 章 序 論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예멘의 분단상황의 특성,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멘의 統一方式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남북예멘이 분단하게 된 歷史的 背景부터 통일 이후 문제점까지 예멘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남북예멘과 남북한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비교하여 예멘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 第 II 章 南北예멘 分斷過程

예멘은 1538년부터 1636년까지, 그리고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두번에 걸쳐 오토만 터키帝國의 지배를 받았다. 오토만 터키제국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된 예멘은 전략적 위치때문에 유럽 諸國의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1839년 영국은 아덴을 점령하여 영국의 인도 식민지정부의 관할하에 두고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당시 아덴을 제외한 남예멘지역은 20여개의 독립적인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영국은 1882년부터 1914년까지 이들과 保護協定을 체결하고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다.

## 1. 北예멘 獨立과 共和國 樹立

1918년 자이드 부족의 이맘 야히야는 터키군이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로 철수하자 사나를 수도로 하여 回教君主國을 수립하였다. 이맘 야히야의 봉건적인 통치하에서 북예멘은 정치·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에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자유예멘인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맘 정부에 대해 政治·社會的 改革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맘 정부가 지식인들을 탄압하자 개혁세력은 1948년 2월 17일 이맘 야히야를 암살하였다.

이맘의 직위를 승계한 야히야의 아들 아마드는 지식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한된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專制的인 이맘 정부하에서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달성될 수 없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민중들의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자 자유주의적인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혁명 정권은 1962년 9월 26일 「예멘아랍共和國」을 선포하고 사랄 대령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한편 王政派는 북부 고원지대에 거점을 형성하고 정권을 재탈환하고자 하였다. 공화파와 왕정파간의 내전은 8년간 지속되었으나 1970년 5월 양측이 聯立政府를 수립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종식되었다.

## 2. 南예멘 獨立運動 過程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랍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자 영국

식민정부는 입법평의회 설립 등 제한된 民主化 措置를 통하여 아덴인들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평의회 선거를 둘러싸고 예멘인들이 정치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이 獨立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다.

부족지역의 유지와 일부 지식인들은 1952년 「남아라비아연맹」이라는 사회단체를 결성하고 民族主義 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남아라비아연맹의 보수적 성향에 실망한 아덴의 젊은 지식인들은 1956년 「아덴노동조합의회」를 결성하여 파업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아랍민족주의 좌파계열의 영향을 받은 부족지역의 학생들과 혁명적 지식인들은 1963년 6월 무장투쟁 단체인 「民族解放戰線」을 결성하였다. 민족해방 전선은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지지기반을 급속히 확대하고, 1965년에는 아덴노동조합의회의 지지를 받아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1967년 11월 30일 영국과 獨立協定을 체결하고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第 III 章 南北예멘의 比較·分析

#### 1. 政府組織과 政治發展

##### 가. 北예멘

1970년 왕정파와 聯立政府를 수립한 이리아니 정권은 보수적 사회집단의 압력 때문에 사회·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리아니는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었고, 1974년 6월 13일 함디 중령이 주도하는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하였다. 함디는 군사평의회를 설치하고 國家 權力을 강화하기 위해 保守的 部族長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문회의를 해체하였다. 함디는 개혁정책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보수파와 부족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여 1977년 10월 11일 암살되었다. 군사평의회 의장직을 승계한 가쉬미는 部族勢力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디 추종자와 좌익세력을 탄압하였다. 가쉬미의 보수적 정책으로 남북예멘관계가 긴장되어 가는 가운데 1978년 6월 가쉬미는 남예멘 특사와 면담 중 暴死하였다.

가쉬미가 암살되자 살레 중령이 軍의 지지를 받아 1978년 7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살레가 집권한 직후 「민족민주전선」이 남예멘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1979년 2월 남예멘군은 「민족민주전선」을 지원하기 위해 북예멘을 침공하였으나 곧 북예멘과 平和協定을 체결하였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란을 진압한 후 살레 대통령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1980년대 말 석유개발로 財政이 강화되자 북예멘 정부는 部族勢力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살레 대통령은 부족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압력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남예멘과 統一을 추진하였다.



## 나. 南예멘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족전선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하여 1969년 6월 알샤비 대통령은 루바이 알리를 중심으로 한 強硬派에 의해서 실각하였다. 루바이 알리는 집권 후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였다.

1975년 민족전선이 群小政黨을 흡수하여 「민족전선통합정치조직」을 설립하자 당내 親蘇派들이 세력을 확장하였다. 1978년 6월 24일 남예멘 특사의 서류가방에 든 폭탄으로 북예멘 가쉬미 대통령이 暴死하자 이를 계기로 이스마일을 중심으로 한 친소파는 루바이 알리를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1978년 10월 이스마일은 예멘사회당을 설립하고, 당과 정부 관계를 蘇聯式으로 규정하였다. 1979년 북예멘과의 전쟁으로 인해 주변 아랍국가들의 원조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원조가 증가하지 않자 당과 정부의 실용주의자들은 이스마일의 親蘇強硬路線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실용주의자들이 알리 나셀 총리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세력을 확장하자 이스마일은 1980년 4월 소련으로 망명하였다. 알리 나셀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주변 아랍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權力鬭爭은 재개되었다. 부족세력의 지지를 받은 알리 나셀은 군부의 지원을 받은 강경파들과 2주간 내전을 치루었으나 패배하여 북예멘으로 망명하였다.

남예멘은 1986년 2월 알아타스를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추대하고 集團指導體制를 구축하였다. 신정부가 내란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동안 고르바초프 개혁정책의 효과가 남예멘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개혁으로 지금까지 남예멘을 지탱해 온 支持基盤이 붕괴되는 것을 느낀 지도층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남예멘에서 개방·개혁을 실시하자 북예멘 살레 대통령은 頂上會談을 개최하기 위해 1989년 11월 아덴을 방문하였다. 아덴 시민들이 살레를 환영하며 통일을 외치자 남예멘 지도층은 社會主義 實驗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북예멘과 통일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2. 經濟體制와 産業實態

### 가. 北예멘

1962년 공화국을 수립한 후 북예멘은 근대적 시장경제체제와 貨幣制度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북예멘 정부는 당시 이집트의 경제체제를 모방하여 대규모 산업에 대해서는 國有化하거나 민간인과 合作投資로 운영하는 한편 영세한 규모의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1970년 북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계가 정상화되자 북예멘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 해외 근로자는 백만명에 달하였는데 이들의 送金額이 북예멘 GNP의 40%를 차지하였다. 해외 근로

자들이 보내준 송금으로 소규모의 상점과 건축업체들이 번성하면서 북예멘에서 자본주의 초기 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북예멘 정부는 1982년 내란을 수습하고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으나 세계적인 經濟沈滯의 영향으로 주변 아랍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 감소하자 북예멘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 1984년 북예멘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석유발굴이 성공하면서 북예멘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石油生産 덕택으로 북예멘 경제는 1980년대를 통하여 연 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 나. 남예멘

1969년 6월 남예멘 정부는 社會主義 經濟建設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국유화 조치와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1970년대 말까지 산업시설의 절반 정도를 국유화하고, 농지의 80%를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소유로 만들었다.

1970년대 말 남예멘 勞動力의 약 15%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은 GNP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을 관리하며 이를 기반으로 産業成長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해외 근로자의 증대와 더불어 기술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주민

들이 低賃金을 받고 취업하려고 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남예멘 정부는 1986년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내전으로 經濟計劃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남예멘의 GNP는 연평균 3.2%씩 감소하였다.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현상을 겪고 있던 남예멘 경제는 매년 4억 달러에 달하는 소련의 經濟援助로 유지되었는데, 1989년 소련이 개방·개혁정책에 따라 경제원조를 5천만 달러로 감소함으로써 경제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 3. 社會構造와 文化生活

#### 가. 北예멘

1962년 공화국을 수립한 직후 북예멘 정부는 社會改革을 시도하였으나, 1970년 왕당파와 연립정부를 수립한 이후 정부의 개혁의지는 쇠퇴하였다. 북예멘 사회구조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을 겪지 않았지만, 1970년 이후 近代的 教育과 자본주의 경제가 확대되면서 점차 변화되었다.

북예멘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이디 부족과 사파이 부족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자이디 부족과 사파이 부족간의 대립은 북예멘 社會統合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북예멘에서는 남자가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으며 家父長的 傳統이 중시되어 여성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북예멘의 教育制度는 新舊制度가 병존하며 전통학교에서는 문자를 쓰는 방법과 코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新學校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제이며, 1980년대 말 현재 국민학교에는 취학연령 아동의 76%, 중고등학교에는 31%가 다니고 있다. 또한 북예멘은 1971년 사나에 대학을 설립하고 高等教育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외국인을 교사로 고용했었다.

#### 나. 南예멘

민족해방전선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술탄과 부족장을 제거하고 부족집단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남예멘 정부의 社會改革은 농촌사회에까지 완전히 침투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부족들은 촌락 수준에서의 傳統的 慣習과 生活樣式을 보존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宗教活動을 금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슬람을 국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宗教團體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사원의 운영자금과 승려들의 생활비를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남예멘 정부의 사회개혁 노력은 국민 보건, 교육 및 여성의 지위향상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남

예멘 정부는 농촌지역에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一夫多妻制를 법으로 금지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독립 후 8년간의 義務教育制度를 신설하고 각급 학교를 확충하여 국민학교는 1967년 329개에서 1977년 976개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동안 7개에서 25개로 증가하였다. 남예멘은 1975년 아덴에 대학을 설립하고 專門家 養成에 주력하여 교육, 의료기술 분야 등에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4. 綜合 評價

남북예멘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政治的 安定과 民主發展 면에서 앞서 있었고 경제력도 우세하였으나 사회·문화면에서는 후진성을 보였다. 남북예멘은 분단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대립되어 있었지만 양국의 경제체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비록 남북예멘의 社會構造에는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이슬람 문화와 전통적 생활양식을 공유함으로써 두 지역 주민들간의 사회의식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인 상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이같이 남북예멘은 국력의 격차가 크지 않고 社會·經濟的 同質性이 상당한 정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예멘 정부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통일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第Ⅳ章 南北예멘의 統一過程

### 1. 南北예멘의 統一에 대한 基本立場

1960년대 말까지 남북예멘 정부는 통일의 當爲性을 인정하고 연방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 북예멘에서 공화파와 왕정파가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남예멘에서 좌파세력이 득세하게 되면서 남북예멘은 각기 자기들만이 예멘인의 민족적 열망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북예멘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북예멘이 歷史的 正統性을 지니고 있고 인구나 경제력에서 우월하므로 남예멘은 즉각 정부를 해체하고 북예멘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북예멘이 半封建 資本主義 社會라는 견해를 지닌 남예멘 사회주의자들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북예멘에 대한 적화통일이었다.

### 2. 統一協商 過程

#### 가. 第1期 協商 過程(1972~1978)

1972년 9월 남북예멘은 전쟁을 겪게 되었지만 리비아 등 아랍국가들의 중재로 곧 휴전하였다. 그 후 1972년 11월 26일 북예멘 이리아니 대통령과 남예멘 루바이 알리 서기장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회동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統一原則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트리폴리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 부족장과 종교지도자 등 북예멘의 보수세력이 심한 반발을 보이며 統一反對運動을 전개하였다. 트리폴리 협정을 둘러싸고 북예멘에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합의는 백지화되었다.

1977년 초부터 북예멘 대통령 함디와 남예멘 대통령 루바이 알리는 정기적으로 합동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들의 協力關係는 북예멘 보수세력을 자극하여 1977년 10월 11일 함디가 암살되었다. 함디에 이어 정권을 장악한 가쉬미는 보수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을 택했으나, 1978년 6월 24일 남예멘 특사의 가방에 든 폭탄에 의해 사망하였다. 가쉬미가 폭사한 이틀 후 남예멘에서는 親蘇 強硬派들이 쿠테타를 일으켜 루바이 알리를 처형하였다. 이처럼 남북예멘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전쟁이 재발하였다.

#### 나. 第2期 協商 過程(1979~1985)

1979년 2월 24일 남예멘 군대는 「민족민주전선」의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예멘 남부지역을 침공하였다. 남북예멘간에 紛爭이 재발되자 시리아와 이라크 등 아랍국가들은 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 아랍연맹의 주선으로 북예멘의 살레와 남예멘의 이스마일은 1979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쿠웨이트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였다. 쿠웨이트 회담에서 남북예멘 정상은 1972년에 체결한 「트리폴리 협정」



을 재확인하고 평화공존을 統一政策의 基調로 채택하였다.

1981년 12월 2일 북예멘의 살레와 남예멘의 알리 나셀은 아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사회·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政治的 統合을 추진하기에는 양국 집권자들의 社會的 支持基盤이 취약하였다. 살레 정권은 남예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부족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알리 나셀 정권은 북예멘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親蘇 強硬派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다. 第3期 協商 過程(1986~1990)

1986년 1월 알리 나셀은 內戰에서 패배하여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북예멘으로 망명하였다. 남예멘에서 당과 군부의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하자 남북예멘 관계는 냉각되었다. 그러나 1986년 7월 북예멘의 살레와 남예멘의 알아타스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統一論議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988년 초까지 남북예멘간 대화의 초점은 망명자들의 귀환과 권리보장에 관한 것이었다. 망명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회담이 공전하는 가운데 國境地帶에서 남북예멘 군대가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양국간에 긴장이 고조되자 살레 대통령과 예멘사회당 서기장 알비드는 1988년 5월 3일 사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경지대를 非武裝地帶化하여 공동개발할 것

을 합의하였다.

1989년 남예멘이 개혁을 단행하자 살레 대통령은 1989년 11월 29일 아덴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아덴회담에서 양국은 통일국가헌법안을 승인하고 國民投票를 통하여 이를 확정짓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1990년 4월 19일 양국 지도층은 사나에서 회동하여 통일선포 및 過渡政府의 조직에 관해서 합의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양측은 1990년 5월 26일자로 통일을 선포하고 30개월간 과도기를 거쳐 總選舉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일부 사회집단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남북예멘 지도자들은 예정일보다 빠른 1990년 5월 22일 통일을 선포하였다.

### 3. 統一過程에 대한 評價

남북예멘은 평화공존기간 중에도 상호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일논의는 空轉을 거듭하였다. 장기간 반복되어 온 남북예멘의 통일협상이 결실을 맺게된 데에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남북예멘의 석유개발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고르바초프의 開放·改革政策에 따라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개입이 철회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간섭도 배제되었다. 한편 남북예멘은 석유개발로 인하여 통일을 이루면 양측 모두 경제적 번영을 누릴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

와 아울러 相互 既得權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타결한 남북예멘 지도자의 결단이 통일을 촉진시켰다.

## 第 V 章 예멘 統一 以後 問題點

### 1. 政治統合 實態와 問題點

예멘의 정치통합 방식은 남북예멘 정부를 1:1의 동등한 비중을 주고 통합한 것으로 對等統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등 통합 방식을 택함으로써 남예멘측이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정부조직을 기계적으로 합병함으로써 過渡政府의 조직은 비대화되는 한편 일관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도정부는 비능률적인 행정과 보수주의자들의 반정부 운동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슬람개혁당의 保守主義者들은 과도정부에 이슬람 교리의 원칙을 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정치적 테러를 감행하자 정치집단간의 폭력이 연쇄적 반응을 일으키며 확대되었다.

과도정부는 1992년 11월 이전에 선거를 치르고 新政府를 출범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總選은 연기되어 1993년 4월 27일에 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국민회의 121석, 예멘사회당 56석, 이슬람개혁당이 62석을 차지하고 중소정당이 총 12석을 차지하였다.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연립

정부는 정부기구 개편과 행정쇄신 등을 통하여 國家體制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예멘사회당간에 신정부의 권력구조와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예멘 政局의 진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 2. 經濟統合 實態와 問題點

과도정부는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예멘의 經濟統合을 지도하였다. 과도기간 동안 남예멘 디나르貨와 북예멘 리알貨를 함께 사용하도록 결정하고 남예멘 지역의 사유화정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실시되었다. 그러나 과도정부는 남예멘 지역의 경제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과 토지를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前所有者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정 형편상 補償措置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같이 통일후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멘인들은 석유개발로 인한 경제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걸프戰이 돌발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전쟁에 패배한 이라크는 예멘에 대해 경제원조를 중단하였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예멘 정부가 연합군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經濟援助를 철회하고 예멘 근로자 약 100만명을 강제귀환시켰다. 해외근로자들이 귀환함에 따라 예멘은 외화 획득원을 상실한 반면 失業率이 급증하였다. 예멘 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채굴권을 외국 기

업에 양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경제난과 높은 실업율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 3. 社會統合 實態와 問題點

남북예멘간 社會統合은 이슬람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예멘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슬람 정신이 社會統合의 基調가 됨에 따라 남예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특히 남예멘지역 여성들은 전과 같은 신분보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 보수주의자들이 이슬람律法을 모든 法의 유일한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 소요를 일으키자 남예멘 주민들은 보수주의자들의 불합리한 태도에 심한 반발감을 표명하였다. 남예멘 주민들의 시위는 경제난이 심해지고 정치적 폭력이 빈번해지면서 과격해졌다.

통일예멘에서 반정부 시위, 勞動者들의 파업, 그리고 주민들의 폭동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악화된 경제사정에 있지만, 이와 함께 남북예멘인들이 相互 敵對感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통일예멘의 신정부가 행정개혁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면 사회집단들의 소요 사태는 확연히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예멘 출신 政治人들간에 갈등

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4. 統合 實態에 대한 評價

통일예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의 統合水準은 걸프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과도정부가 경제적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統合方式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예멘의 관료를 그대로 흡수한 過渡政府는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한편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행정적 결함은 경제상황을 악화시켰고 경제상황의 악화는 사회적 혼란을 증대시켰다. 이같이 政治·經濟·社會的 問題가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사태는 새로운 연립내각의 출범으로 정치가 안정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신정부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간에 불화가 심화되어 經濟·社會的 不安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第 VI 章 南北韓 統一에 대한 示唆點

### 1. 南北예멘과 南北韓의 類似點과 差異點

예멘과 한국은 잦은 외침을 받았지만 강한 單一民族意識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남북예멘과 남북한간의 差異點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예멘은 전쟁이 발발한 경우 주변 아랍국가들의 중재로 쉽게 休戰에 임하였다. 둘째, 남북예멘 정부는 社會 統制力이 약했던 반면 남북한 정부는 강력한 사회 통제력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셋째, 남북한은 남북예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남북한간의 經濟力 隔差는 남북예멘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다. 넷째, 남북한은 주민들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한 결과 남북예멘보다 훨씬 더 異質的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2. 統一過程에 대한 示唆點

예멘 통일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예멘의 對外關係에 관한 분석은 남북한이 주변국들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남북예멘의 협상과정은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實體를 인정하고 분열전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남북예멘의 통일과정은 남북한이 경제·사회분야의 機能的 協力關係와 병행하여 統一原則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남예멘의 개방·개혁이 예멘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구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統一 以後 對備策에 관한 示唆點

예멘 통일후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남북한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멘통일은 남북한이 통일정부의 權力配分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둘째, 남북한은 통일후 정치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物理的 強制力을 행사하는 기구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은 형식적인 평등원칙만을 고집하지 말고 남북한의 실질적 경제력에 기초한 경제통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은 통일 국가의 경제적 문제점이 단순히 異質經濟體制를 통합하는 데 있지 않고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은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교육정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은 사회·문화통합을 원활히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회관계에 대한 合理的인 가치관을 육성해야 한다.

## 第Ⅶ章 結 論

예멘식 統一方式은 통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일정부의 비효율성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예멘과 같이 政治的 妥協에 의해 통일을 달성하게 되더라도 통일 이후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통일과정에서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협상 과정과 합의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통일 과도기간 중 국가의 物理的 強制力을 행사하는 기구들의 통합을 완결지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은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과도기간 중 정치통합을 완결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강력한 單一政府를 수립해야한다.

# 目 次

|                               |    |
|-------------------------------|----|
| 第 I 章 序 論 .....               | 1  |
| 第 II 章 南北예멘 分斷過程 .....        | 5  |
| 1. 北예멘 獨立과 共和國 樹立 .....       | 7  |
| 2. 南예멘 獨立運動 過程 .....          | 13 |
| 第 III 章 南北예멘의 比較·分析 .....     | 19 |
| 1. 政府組織과 政治發展 .....           | 19 |
| 가. 北예멘 .....                  | 19 |
| 나. 南예멘 .....                  | 27 |
| 2. 經濟體制와 産業實態 .....           | 37 |
| 가. 北예멘 .....                  | 37 |
| 나. 南예멘 .....                  | 41 |
| 3. 社會構造와 文化生活 .....           | 47 |
| 가. 北예멘 .....                  | 47 |
| 나. 南예멘 .....                  | 50 |
| 4. 綜合 評價 .....                | 54 |
| 第 IV 章 南北예멘의 統一過程 .....       | 61 |
| 1. 南北예멘의 統一에 對한 基本立場 .....    | 61 |
| 2. 統一協商 過程 .....              | 67 |
| 가. 第1期 協商 過程(1972~1978) ..... | 68 |

|                               |     |
|-------------------------------|-----|
| 나. 第2期 協商 過程(1979~1985) ..... | 73  |
| 다. 第3期 協商 過程(1986~1990) ..... | 79  |
| 3. 統一過程에 대한 評價 .....          | 85  |
| 第 V 章 예멘 統一 以後 問題點 .....      | 91  |
| 1. 政治統合 實態와 問題點 .....         | 91  |
| 2. 經濟統合 實態와 問題點 .....         | 100 |
| 3. 社會統合 實態와 問題點 .....         | 104 |
| 4. 統合 實態에 대한 評價 .....         | 109 |
| 第 VI 章 南北韓 統一에 대한 示唆點 .....   | 113 |
| 1. 南北예멘과 南北韓의 類似點과 差異點 .....  | 114 |
| 2. 統一過程에 대한 示唆點 .....         | 119 |
| 3. 統一 以後 對備策에 관한 示唆點 .....    | 123 |
| 第 VII 章 結 論 .....             | 130 |
| 參考文獻 .....                    | 134 |

## 第 I 章 序 論

예멘인들은 예멘이 아랍문명의 근원지이고 자신들은 古代에 번영했던 시바 왕국과 힘아라이드 왕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예멘인들의 강한 민족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紅海에 인접한 戰略的 位置때문에 예멘은 강대국 세력다툼의 각축장이 되어 장기간 분단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예멘은 16세기 초부터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19세기 중반에는 아덴을 중심으로 한 남예멘지역이 영국에게 점령당함으로써 남북으로 분단되어 각기 다른 국가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북예멘은 오토만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1918년 回教君主國을 수립하였다. 독립을 달성한 북예멘은 남예멘을 영국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자 빈번히 남예멘 지역을 침공하였지만 영국군에 패배하여 통일을 달성할 수 없었다. 1962년 북예멘에서 共和政府가 수립되고 1967년 남예멘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예멘인들은 통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 정치인들의 이해 대립과 더불어 사우디 아라비아와 소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남북예멘간 理念的 隔差가 커지자 남북예멘의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분단상태에서 남북예멘은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빈번히 무력 충돌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國境地域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민족통일의 열망을 가지고 협상을 개최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끈질긴 협상의 결과 남북예멘은 분단된 지 이십여년 만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였다. 남예멘과 북예멘 정부지도자들은 1990년 5월 22일 남예멘의 수도 아덴에서 통일을 선포하고 統一過渡政府를 수립하였다.

예멘은 정치·경제적으로 후진국가이며 천연자원도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중동문제 전문가들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등 産油國들이나 小國이지만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나 남북예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동 전문가들도 등한시하는 예멘이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남북한과 같이 分斷國으로 고통을 받던 남북예멘이 타협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예멘통일은 독일통일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끌게되었다.

동서독이 1990년 5월 18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政治的 統合을 준비하고 있을 즈음 남북예멘은 통일을 선포하였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은 모두 평화적으로 달성되었지만 독일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吸收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예멘통일은 남북예멘이 대등한 조건에서 合併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이 통일 후 심한 사회·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본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獨逸式

吸收統一보다 예멘式 對等統一이 남북한 통일에 더욱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멘의 통일방식이 남북한 통일방식으로 적절한 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남북예멘의 분단상태와 통일과정 및 통일 후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南北韓 統一에 예멘통일방식이 독일 통일방식보다 더 적절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예멘의 분단상황의 특성,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멘統一方式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남북예멘이 분단하게 된 歷史的 背景부터 통일 이후 문제점까지 예멘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남북예멘과 남북한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비교하여 예멘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 II 장에서 예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歷史的 過程을 기술하고, 제 III 장에서 남북예멘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이질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남북예멘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통일환경의 특성, 통일협상 과정, 합의내용, 그리고 남북예멘이 통일에 합의하게 된 國內外的 動因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 이후 문제점들을 다루는 제 V 장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부문별로 統合 實態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겠다. 제 VI 장에서는 예멘과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지적하고 예멘통일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示唆點들을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예멘의 통일방식과 독일의 통일방식을 비교하고 예멘식 대등통일 방식의 남북한 통일에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第 II 章 南北예멘 分斷過程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BC950년부터 BC115년 사이에 시바(Sheba) 王國이 통치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AD525년까지는 힘야라이드(Himyarite) 왕조가 설립되어 현재의 남북예멘 全地域을 지배하였다.<sup>1)</sup> 힘야라이드 왕조가 이디오피아의 침공에 의해 멸망한 이후 예멘지역은 페르시아, 이집트, 터키 등의 침략을 겪는 과정에서 部族國家의 형태로 분열되었다. 예멘인들은 고대에 번성했던 왕국의 후손으로서 선조들이 아랍민족의 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막과 산악으로 분리된 지형과 외세의 침략으로 역사상 單一國家를 형성했던 시기보다 외세의 영향력하에서 분열된 상태를 유지했던 시기가 더 많았다.

다른 아랍국가의 영향으로 예멘인들은 7세기부터 이슬람교를 신봉하게 되었는데 부족에 따라 약간의 宗教的 差異를 보이게 되었다. 이슬람교가 들어 온 이후 북부 고원지대 예멘인들은 시아 이슬람(Shii Islam)의 자이디(Zaidi) 분파를 추종하게 되었고, 남부 예멘인들은 수니 이슬람(Sunni Islam)의

---

1) Robin Bidwell, *The Two Yemens* (Boulder: Westview Press, 1983), p. 4.



사파이(Shafai) 분파를 신봉하게 되었다. 자이디 분파와 사파이 분파는 宗教 教理上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이디 부족의 이맘(Imam:교주)이 9세기에 라시드(Rassid) 왕조를 설립한 이후 예멘 역사상 好戰的인 자이디 부족 출신이 王權을 장악하고 사파이 부족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이디 부족과 사파이 부족간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상존하게 되었다.<sup>2)</sup>

예멘은 1538년부터 1636년까지 그리고 1871년부터 191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오토만 터키(Ottoman Turks)帝國의 지배를 받았다. 오토만 터키제국의 영향력하에 놓이게 된 예멘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홍해에 인접한 戰略的 位置때문에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諸國의 경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1839년 영국은 아덴(Aden)을 점령하여 영국의 인도 식민지정부의 관할하에 두고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아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자 영국은 남예멘 지역에 대한 植民統治를 확대하여 오토만 터키와 북예멘 부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아덴을 방어하기 위한 완충국으로 이용하였다.

당시 아덴을 제외한 남예멘지역은 20여개의 독립적인 王國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영국은 1882년부터 1914년까지 이들

---

2) 이맘은 종교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슬람 시아파는 이맘을 神聖한 존재로 추앙하며 이맘에게 정치적 권력을 부여한다. 북예멘에서 이맘의 전통은 라시드 王朝에서 확립되어 1962년 공화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회교군주국들과 차례로 保護協定을 체결하였다. 보호협정에 의하여 남예멘지역의 술탄(sultan: 회교국군주)와 부족장(shaykhs)들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영국군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內政問題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외관계에서는 영국 관리의 자문을 받아야 했으며 영국의 동의없이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1914년 영국은 오토만 터키제국과 남북예멘을 분할하는 국경선에 관한 협정을 맺고 남예멘 지역에 대한 統治權을 보장받았다. 이로써 남북예멘의 분단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

## 1. 北예멘 獨立과 共和國 樹立

1911년 자이드 부족의 이맘 야히야(Yahya Hamid al-Din)가 북부 山岳地帶를 거점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켜 해안지역을 제외한 북예멘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1918년 이맘 야히야는 북예멘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터키군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철수하자 사나(Sana'a)를 수도로 하는 回教君主國을 수립하였다. 아랍국가에서 최초로 독립을 획득한 북예멘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당시 영국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던 이탈리아와 소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북예멘은 1927년 이탈리아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1928년에는 소련과 友好協定을 체결하였다.<sup>3)</sup>

소련으로부터 무기원조를 받아 군대를 정비한 이맘 야히야는 아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예멘지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남예멘지역을 영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영국의 지지를 받은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領土紛爭을 초래하였다.

1934년 북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아시르(Assir)지역 등 國境地域 일부를 사우디 아라비아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협상을 개최하여 북예멘의 독립을 인정받은 반면, 영국과 오트만 터키제국이 체결한 남북예멘 國境線에 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그 후 이맘 야히야는 정부관리와 군인들을 이라크와 이집트에 파견하여 교육시키는 등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맘 야히야의 봉건적인 통치하에서 북예멘은 극단적인 鎖國政策을 택하여 정치·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외국 유학과 서구문물을 통하여 自由主義的 思潮를 신봉하게 된 북예멘 지식인들은 1930년대 중반부터 근대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44년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자유예멘인당」(Free Yemeni Party)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계몽

---

3) Imad Aldien Mohammed Ahmmed, *Yemen's Division and Unification in the Perspective of World System Theory*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1991), p. 49.

서적과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 이맘 정부에 대해 政治·社會的 改革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식인들은 이맘 정부가 다른 아랍 국가들과 같이 내각과 의회를 구성하고 立憲君主制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sup>4)</sup> 이맘 정부는 지식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개혁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개혁세력은 1948년 2월 17일 이맘 야히야를 암살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북부 部族勢力의 지원을 받은 야히야의 아들 아마드(Saif al-Islam Ahmad)가 개혁세력의 반란을 진압함에 따라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아덴으로 피신하였다.

이맘의 직위를 승계한 아마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랍지역에서 改革運動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지식인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외국문물에 대한 제한된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예멘은 1951년 영국, 미국,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들의 기술지원을 받아 경제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맘 아마드는 1952년 이집트에서 나세르의 軍事革命으로 왕정이 붕괴된 이후 아랍민족주의 운동이 고조되자 남예멘지역에서 영국군 철수를 주장하며 자신을 예멘민족의 이익을 수호하는 자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953년 북예멘은 남예멘지역을 빈번히 침공하는 한편, 유엔 총회에서 남예멘지역에 대한 領有權을 주장하였다.

---

4) Leigh Douglas, "The Free Yemeni Movement: 1935~62," in B. R.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oli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 (London: Croom Helm, 1984), pp. 39~41.

1956년 북예멘은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이집트, 시리아 등과 軍事同盟을 맺었다. 북예멘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이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남예멘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이같이 이맘 통치하에서 북예멘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영국군을 축출하고 統一을 달성할만한 실질적인 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62년 이맘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북예멘에는 근대적 산업시설과 教育制度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공장은 가내 수공업이 대부분이었고 교육은 전통적 이슬람 학교에서 담당하였으며, 근대적 의료시설의 부분적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멘의 지식인들은 경제·사회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回教君主國이 영국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맘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맘 정부를 진보적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간주하였다.<sup>5)</sup>

1960년에 접어들어 전제적 통치에 염증을 느낀 민중들의 反政府 示威가 전개되는 가운데 1961년 4월 이맘 아마드가 암살자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정치가 혼란해지자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소장파 장교들은 1961년 12월 「自由

---

5) Siobhan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 Gulf Report Special Issue (London: Gulf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October 1991), p. 4.

將校團」(Free Officer Organization)을 결성하고 쿠데타를 기도하였다. 1962년 9월 16일 이맘 아마드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바드르(Muhammad al-Badr)가 이맘職을 승계하였으나 곧 자유주의적인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붕괴시켰다. 군사혁명정권은 1962년 9월 26일 「예멘아랍공화국」(Yemen Arab Republic)을 선포하고 사랄(Abdullah al-Salal) 대령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새 共和國은 자유주의적인 지식인, 남부 사파이 부족 상인, 해외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 근대화된 관료와 군인, 그리고 일부 자이디 부족 세력의 지지를 받았으며,<sup>6)</sup> 대외적으로는 이집트, 미국, 소련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유엔에 가입하였다.

한편 군사혁명에 의해 축출당한 王政派는 북부 고원지대에 거점을 형성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등 아랍 보수국가와 영국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재탈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共和派는 이집트, 이라크 등 진보적 아랍국가와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특히 이집트는 아라비아반도에서 영국 세력을 축출하고 수에즈 運河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1964년에서 1968년 사이에 4만에서 8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북예멘에 파견하여 사랄 정권을 지원하였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左傾 共和主義 理念의 확산을

---

6) Manfred W. Wenner, *The Yemen Arab Republic: Development and Change in an Ancient Land*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131~132.

방지하고 석유 수송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예멘의 內政에 깊이 개입하였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소련 등이 개입함으로써 북예멘의 내란은 國際的 紛爭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공화정부를 승인하였으나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북예멘 내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공화파와 왕정파간의 내전은 1965년부터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967년 8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이잘 王이 軍事介入을 중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내전 기간중 이집트에 대해 굴욕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랄 정권은 休戰協定에 반대하고 왕당파를 섬멸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사랄의 무능력과 王政派에 대한 강경자세에 불만을 품은 공화파 내부의 온건파는 1967년 7월 쿠데타를 일으켜 사랄을 축출하였다. 이리아니 (Abd al-Rahman Iryani)를 중심으로 한 공화파 온건계열은 王政派와 즉각적인 타협을 희망하였으나, 왕정파는 이집트軍의 철수와 함께 공세를 재개해 1967년 12월부터 1968년 2월까지 70일간 북예멘 수도 사나를 포위하였다. 왕정파의 공세로 공화파가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소련과 시리아는 공화파에 대해 軍事援助를 제공하였으며 남예멘은 의용군을 파견하였다.

그 후 2년간 더 지속된 내란은 공화파와 왕정파 내부의 온건파들간의 타협으로 종식되었다. 1970년 5월 북예멘과 사우

디 아라비아는 왕정과 세력이 북예멘의 共和政府에 참여한다는 조건하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8년간 지속되어 15만명의 전사자를 낸 내전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북예멘 정부에 대한 재정원조와 보수적 부족 세력에 대한 資金 支援을 통해 內政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면서 북예멘을 남예멘 좌익세력의 확산을 막는 완충지역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

## 2. 南예멘 獨立運動 過程

1937년 영국은 아덴을 영국정부의 직접통치하에 두고 貿易 仲介港으로 근대화시켰다. 그러나 아덴을 제외한 남예멘 내륙 지역은 영국의 인도 식민지정부의 間接統治를 받으며 술탄과 부족장의 지배하에 전통적 사회구조와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영국 식민정부의 지배하에서 아덴인들은 점차 정치적으로 의식화되었지만 경제적 번영으로 커다란 정치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남예멘 내륙지역에서는 일부 부족들이 反英暴動을 일으켰지만 영국은 다른 부족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남예멘 내륙지역의 주민들은 정치의식이 낮아 영국의 지원을 받는 部族政府에 대해 단합된 대항을 할 수 없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랍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남예멘에서도 英國統治에 대한 반항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아덴 노동자들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발하여 3일간 파업을 일으켰는데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아랍民族主義 運動이 고조되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빈번해지자 영국 식민정부는 입법평의회(Legislative Council)를 설립하고 예멘인을 입법평의회 의원으로 임명하는 등 제한적인 民主化 措置를 실시하여 아덴인들의 식민정부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 1949년 식민정부는 입법평의회 의원을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공표하였는데, 아덴에 거주한 年限과 財産을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 주민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sup>7)</sup> 이에 아덴 노동자들은 선거법 개정, 노동조건 개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입법평의회 선거를 둘러싸고 아덴인들이 정치화되어 가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결성되어 民族主義 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다.

부족지역의 지방유지와 아덴의 일부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1952년 「남아라비아聯盟」(South Arabian League) 이라는 사회단체를 결성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아덴 상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영국 식민정부와 타협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남아라비아연맹은 예멘인들의 民族意識을 각성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

7) Bidwell, *The Two Yemens*, p. 76.

아덴의 젊은 지식인들은 남아라비아연맹의 보수적 성향에 실망하여 점차 勞動運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1956년 직장별 단위 노동조합들을 결집하여 「아덴노동조합의회」(Aden Trade Union Congress)를 결성하고 아스낙(Abdullah al-Asnag)을 서기장으로 추대하였다. 아덴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세력을 급속히 확장하여 1950년대 말에는 아덴인들의 反英運動을 주도하게 되었다.

전후 세계적인 경제 활성화와 아랍지역의 석유개발 붐에 힘입어 1950년대와 1960년대 아덴지역의 노동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팽창하자, 1962년 아덴노동조합의회 서기장 아스낙은 「인민사회당」(People's Socialist Party)이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하고 反英 獨立運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9월 26일 북예멘에서 공화파 군사혁명이 돌발하자 영국 식민정부는 보수적 부족세력을 이용하여 아덴의 급진적인 운동을 견제하고자 아덴과 내륙지역을 병합하여 남아라비아聯邦(Federation of South Arabia)을 형성한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인민사회당은 자치정부 수립을 원하는 아덴인들과 아덴노동조합의회의 지지를 받아 남아라비아연방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963년 1월 아덴은 남아라비아연방에 편입되었고,<sup>8)</sup>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8) 남아라비아聯邦은 9명으로 구성된 각료회의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법무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예멘인이었다. 1964년 영국 정부는 남아라비아연방을 1968년

人民社會黨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한편 아랍민족주의 좌파계열의 영향을 받은 남예멘 내륙지역 학생들과 혁명적 지식인들은 북예멘에서 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을 계기로 북예멘 남부 도시 타이즈와 북예멘 수도 사나에서 비밀회담을 갖고 武裝鬪爭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중 1963년 6월 사나에서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of Occupied South Yemen: NLF)을 결성하였다. 남아라비아연맹, 아덴노동조합의회, 인민사회당 등 기존의 反英運動 단체들이 아덴에 기반을 두고 정치·외교적 활동과 파업 등 비폭력적 시위에 주력했던 데 반하여, 민족해방전선의 주축은 남예멘 내륙지역 部族出身 학생과 노동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게릴라 활동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다.<sup>9)</sup> 민족해방전선은 1963년 10월 전통적으로 反英意識이 강한 아덴 북쪽 라드판(Radfan) 지역에서 영국군과 親英 部族政府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민족해방전선은 남예멘의 북부 산악지대에 거점을 형성한 이후 동북부지역 부족인들 사이에 급속히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1964년에는 아덴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5년에 이르러 民族解放戰線이 아덴 노동자들 사이에서

---

독립시키기로 약속하였다. 영국의 의도는 親英 政府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남예멘 독립을 허용하려는 것이었다.

9) Helen Lackner, "The Rise of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 50.

인민사회당보다 더 인기를 끌게 되고 아덴노동조합의회의 지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족해방전선이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해가자 人民社會黨은 다른 단체와 결합하여 1965년 6월 「남예멘해방조직」(Organization for the Liberation of Occupied South: OLSO)이라는 무장단체를 결성하였다. 민족해방전선과 남예멘해방조직이 경쟁적 입장에 놓이게 되자 이집트는 이들로 하여금 결합하여 조직을 單一化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집트의 권유에 따라 1966년 8월 13일 민족해방전선과 남예멘해방조직은 통합에 합의하고 「남예멘해방전선」(Front for the Liberation of Occupied South Yemen: FLOSY)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후원을 받은 아스낙이 남예멘해방전선의 지도자로 추대되자 民族解放戰線은 1966년 10월 남예멘해방전선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7년 9월 민족해방전선은 아덴 근교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남아라비아연방이 사실상 붕괴되는 상태에 이르자 民族解放戰線은 남예멘해방전선과 전면전을 벌여 승리하였다. 남예멘해방전선과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한 민족해방전선은 영국과 獨立協定을 체결하고 1967년 11월 30일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노동자, 농민, 학생, 중산층 지식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민족해방전선은 창립 초기 反英 武裝鬭爭 이외에는 특별한 이념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4년간의 무력투쟁을 겪는 동안 맑스-레닌주의를 지향

하는 혁명적 지식인들의 입지가 강화되어 남예멘인민공화국은 社會主義를 체제이념으로 내세웠다.

### 第 III 章 南北예멘의 比較·分析

#### 1. 政府組織과 政治發展

##### 가. 北예멘

공화국 수립 당시 북예멘의 정치체제는 형식상 이슬람교의 원리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立憲共和制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질적인 권력은 이집트의 군사혁명정부를 모방한 「혁명지도회의」(Revolutionary Command Council)가 장악하고 있었다. 1965년 정부조직의 개편과정에서 「혁명지도회의」는 「공화국평의회」(Republican Council)로 명칭이 바뀌었다. 1967년 쿠데타를 통하여 政權을 장악한 이리아니(Iryani)는 「공화국평의회」 의장이 되었으며, 1968년 이리아니를 중심으로 한 共和派 온건계열은 자이디 부족세력의 지지를 받아 공화파 좌파계열을 숙청하고, 1970년 사우디 아라비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왕정과 온건계열과 聯立政府를 수립하였다. 공화파와 왕정파가 연립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북예멘 정부는 혁명적 성격을 상실하고 보수화되었다.

1970년 북예멘 정부는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였다.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북예멘은 이슬람공화국으로 이슬람律法(Sharia)이 모든 法의 근원이 되며 법관은 종교학자로 구성된다. 국가의 실질적 통치권은 集團的 指導體制의 성격을 지닌 「공

화국평의회」가 행사하였는데, 공화국평의회는 149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Consultative Council)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 규정에 입법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당 활동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문회의가 議會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공화국평의회 의장 이리아니는 중도좌파 출신인 애이니(Mushin Almad al-Ayni)를 총리에 임명하였으나 내각의 장관직 3개는 왕정과 출신에게 배당하였고 部族長들이 자문회의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할 수 없었다. 특히 북부 부족세력은 「하시드」(Hashid)와 「바킬」(Bakil)이라는 部族聯盟으로 단합하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시드 부족연맹 총수 아흐말(Abdallah al-Almar)은 자문회의 대변인이 되었으며 부족출신들이 정부와 군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방에서는 부족세력이 독자적으로 군대를 유지하며 中央政府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도지사를 임명하였지만, 지방의 실질적인 권력은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세습되는 부족장이 장악하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勢力均衡에 의해 유지된 이리아니 정권은 보수세력의 저항때문에 과감한 사회·경제 개발정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었으며, 1974년 6월 13일 함디(Ibrahim al-Hamdi) 중령이 주도하는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함디는 공화국평의회를 해체하고 대신 「軍事評議會」(Military Command Council)를 설치하여 군사평의회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최고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였다. 함디는 軍部統治를 정당화하기 위해 1974년 6월 19일 臨時憲法을 발표하고 1년 이내에 새 헌법을 발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1985년 중반까지 북예멘은 사실상 1974년에 제정된 임시헌법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함디 정권은 먼저 취약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保守的 部族長들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문회의를 해체하였다. 아울러 북부 자이디 部族勢力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남부 사파이 부족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중용하는 한편 좌파성향의 민주개혁세력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 이에 1968년 權力鬭爭에서 패배한 이후 아덴과 남부 사파이 부족지역에 잠복해 있던 공화파 좌파계열은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이슬람 사회주의자, 맑스주의자 등을 규합하여 1976년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이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하였다.

함디는 改革政策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지만, 정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그의 노력은 실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반면 함디 정권의 남예멘에 대한 宥和政策과 좌파 민주세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보수파와 부족세력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1977년 함디 정권과 부족세력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일부 부족은 공공연히 정부에 도발하였고, 政府軍은 반란을 일으킨 부족을 징계하기 위해 공습을 단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같이 부족세력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함디는 남예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아덴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아덴으로 출발하기 전날 1977년 10월 11일 함디가 암살됨으로써 진보세력의 政治發展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좌절되었다.<sup>1)</sup>

함디가 암살됨에 따라 가쉬미(Ahmad Hussein al-Ghassmi) 중령이 「군사평의회」議長職을 승계하였다. 가쉬미는 1978년 2월 「헌법제정국민회의」(People's Constituent Assembly)를 설립하고 진보세력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99명의 代議員을 대부분 도시출신들로 충원하였다. 그리고 헌법제정국민회의가 그를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였다. 보수적 입장을 취한 가쉬미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部族勢力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함디 추종세력과 좌익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에 사파이 부족출신 공수부대장과 그 추종자들은 남부지역으로 내려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政府軍에 의해 진압되었고 반란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남예멘으로 피신하여 「민족민주전선」의 무장단체에 가입하였다.

1) 당시 함디의 암살에 관한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살 이후 북예멘 정치의 전개과정으로 보아 部族長들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후원을 받은 가쉬미 중령이 암살을 음모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가쉬미의 保守的 政策으로 남북예멘관계가 긴장되어 가는 가운데 1978년 6월 가쉬미는 남예멘 루바이 알리 대통령의 특사와 면담 중 특사의 가방에 든 폭탄의 폭발로 사망하였다. 가쉬미가 암살되자 부참모총장직을 맡고 있던 살레(Ali Abdullah Saleh) 중령이 軍의 지지를 받아 1978년 7월 헌법 제정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살레가 정권을 잡았을 때 군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몇몇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살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행정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당시 예멘인들은 그의 執權이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살레는 헌법제정국민회의 대의원수를 159명으로 증원하여 部族勢力을 충원하고, 「국민 화합위원회」(National Dialogue Committee)를 구성하여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정권에 포섭하였다. 이같이 살레는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정권의 안정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살레가 집권한 직후 南部地域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이 남예멘의 지원을 받아 핵심 간부요원 700명에 전체 무장병력 5,000명으로 반란을 일으켰다.<sup>2)</sup> 1979년 2월 남예멘군은 「民族民主戰線」을 지원하기 위해 북예멘을 침공하였으며, 남예멘군과 민족민주전선은 북예멘의 3대 도시에 속하는 타이즈를

2) Richard F. Nyrop, *The Yemen Country Studies: Area Handbook Ser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 228.

포함한 남부지역을 장악하였다. 이같이 북예멘 정부군이 패배하고 있을 때, 북부 부족장들은 약 6,000명에 달하는 部族軍隊를 파병하여 남예멘과 민족민주전선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9년 3월 28일 남북예멘간에 平和協定이 체결된 이후 살레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와 부족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살레는 前任 함디 대통령과 같이 북예멘이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部族勢力의 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다. 살레 정권은 북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나친 통제를 배제하기 위해 1979년 8월 소련과 武器協定을 체결하여 소련의 원조로 군대를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살레정권은 무장투쟁을 중지하고 아덴에 있는 방송시설을 폐쇄하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민족민주전선과 停戰協定을 체결하였다.

소련과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민족민주전선을 정치권에 포섭하여 정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살레의 노력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부족세력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하시드(Hashid)와 바킬(Bakil)에 소속된 部族長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원하에 「이슬람전선」(Islamic Front)를 결성하여 민족민주전선을 섬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민족민주전선에 대한 전쟁을 재개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財政

援助를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가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보수세력의 압력으로 살레 정부는 민족민주전선에 대해 강경책을 택하게 되고 민족민주전선은 1980년부터 武裝活動을 재개하여 1982년 초까지 정부군과 대립하였다. 1982년 4월 민족민주전선은 정부군에게 완전히 패배하였으며 잔존세력은 아덴으로 철수하였다.

살레 정권은 民族民主戰線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살레는 자기 부족 출신을 軍과 정보기관의 요직에 배치하고 사회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정권을 보존하였다. 살레는 사회집단의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고 파벌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部族에게 각료직을 안배하였으며, 국민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1982년 10월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는 準議會的 性格을 띤 국민회의(People's General Congress)를 창설하였다. 국민회의는 총 1,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700명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300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살레는 국민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政治參與를 유도하는 한편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발표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살레는 1983년 대통령직에 재선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고 正統性도 약했다. 정부는 매년 1억달러에 달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보조금에 의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

었으며,<sup>3)</sup> 部族長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정부의 취약성은 1985년 석유가 개발되면서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石油發掘로 경제성장을 낙관하게 된 국민들은 살레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고, 정부는 석유 수입으로 財政 自立度를 높이게 되었다. 1987년 석유를 수출하면서부터 국가재정이 강화되자 정부는 서비스 시설과 고용을 증대하며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部族地域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하고 부족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부족세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하였다.

또한 살레 대통령은 북예멘의 정치발전을 위해 民主化 措置를 단행하여 이슬람 보수세력과 좌파 민주세력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 1988년 7월에는 북예멘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구성되었다. 국회 의석 159석 중 128석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1/4이 回教原理主義者들의 단체인 「모슬렘형제당」(Muslim Brotherhood)에 동조하는 사람이었다.<sup>4)</sup> 그리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살레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3선 대통령이 되었다.

3) M. S. El Azhary, "Aspects of North Yemen's Relations with Saudi Arabia,"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 198.

4) *The Europa World Yearbook 1992* (London: Europa Publications Ltd., 1992), p. 3168.

독립 이후 계속된 권력투쟁으로 북예멘의 정치는 항상 불안하였으나 살레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지도체제가 一貫性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석유개발로 국가의 재정이 강화됨에 따라 1989년 말 정부는 부족세력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依存度는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예멘 정부는 부족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압력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統一政策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南예멘

1967년 11월 30일 독립한 「남예멘인민공화국」은 「민족해방전선」의 書記長 알샤비(Qahtan al-Sha'abi)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민족해방전선은 명칭을 「민족전선」으로 바꾸고 게릴라 조직을 黨의 형태로 개편하였다. 민족전선은 국가기구를 창설하고 전국을 6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행정 단위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社會主義 國家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민족전선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었다. 권력투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강경파들의 입장이 강화되었고 온건노선을 지향한 알샤비 대통령은 1969년 6월 루바이 알리(Salem Rubayi Ali)를 중심으로 한 強硬派의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 실각하였다.

루바이 알리는 집권한 후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며 土地改革과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루바이 알리 정권은 1970

년 11월 새 헌법을 공포하고 國名을 「예멘민주인민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새 헌법에 의하면 남예멘 정부는 이슬람을 국교로 인정하고 私有財産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 헌법은 노동자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민족·민주혁명을 달성한다고 선언하였다.<sup>5)</sup> 새 헌법은 立法機構로서 101명으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와 집행기관으로 「대통령평의회」 및 이를 보좌하는 내각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민족전선과 이들 정부기구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설정하지는 않았다.

大統領評議會는 의장(대통령) 루바이 알리, 민족전선 서기장 이스마일(Abd al-Fattah Ismail), 총리 알리 나셀(Ali Nasser Muhammad)로 구성되어 3인의 寡頭體制로 운영되었다. 이들 3인은 민족해방전선 설립자들로서 당내 온건파를 숙청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기 의견을 달리했다. 루바이 알리는 親中國的 性向을 보이며 대중노선을 선호했고, 이스마일은 親蘇的 外交路線을 선호하며 교조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 알리 나셀은 대내외 정책에 있어 루바이 알리와 이스마일에 비해 융통성을 보이며 實用主義 路線을 선호하였다. 당시 루바이 알리는 정부와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스마일은 당에 세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었

5) Bidwell, *The Two Yemens*, pp. 228~229.

으며 알리 나셀은 당과 정부의 실용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집권층 내부에서 이들 삼인의 역학관계는 향후 남예멘 政局의 向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6)</sup>

한편 국가기구와 별도로 민족전선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권력의 二重構造가 형성되었다. 민족전선은 1971년 「과학적 사회주의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고급간부를 양성하고, 黨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약 500명의 쿠바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黨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 1만5천명의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민족전선은 1972년 5월 제5차 당대회에서 民主的 集中制에 의해 당체제를 정비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결의하였다. 제5차 당 대회 이후 민족전선은 소련 고문관을 초대하여 黨員들을 소련식으로 훈련시켰으며 소련에 당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에 중국식 개혁을 선호한 루바이 알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동원하여 아덴 시가지에서 당의 관료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도록 하였다.<sup>7)</sup> 그러나 루바이 알리는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인 경제·군사원조를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親蘇派들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남예멘은 1975년 아덴, 소코트라섬, 페림섬에 소련이 공군

6) John Peterson, "Nation-building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Two Yemens,"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p. 94~95.

7) Fred Halliday, "Soviet Relations with South Yemen,"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p. 218~219.



과 해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소련과 남예멘 관계가 더욱 밀착되어 가는 가운데 民族戰線은 2개의 소규모 정당을 통합하여 「민족전선통합정치조직」(United Political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Front: UPONF)이라는 單一政黨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민족전선을 확대개편하여 단일정당 독재체제를 확고히 한 것인데, 이스마일을 중심으로 한 당내 친소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내 教條主義者들은 「민족전선통합정치조직」 결성을 계기로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으며 루바이 알리정권을 타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sup>8)</sup> 집권층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진행되는 가운데 1978년 6월 24일 남예멘 특사가 지참한 서류가방에 든 폭탄으로 북예멘의 가쉬미 대통령이 暴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스마일을 중심으로 한 친소파는 6월 26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루바이 알리를 체포하여 처형하였다.<sup>9)</sup>

권력투쟁에서 친소파의 승리로 정부구조는 더욱 소련식으로 개조되었으며 남예멘은 동유럽 국가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8) Norman Cigar, "South Yemen and the USSR: Prospects for the Relationship," *The Middle East Journal*, vol. 39, no. 4 (Autumn 1985), p. 787.

9) 가쉬미의 暴死事件에 대한 정확한 진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멘 전문가들은 폭사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후 親蘇派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政權을 장악한 것을 보고 親蘇派들이 루바이를 제거하기 위해 특사의 서류가방을 폭탄이 장전된 가방으로 바꾸고 가쉬미 폭사에 대한 책임을 몰어 루바이 알리를 제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지하게 되었다. 1978년 10월 이스마일은 「민족전선」을 해체하고 맑스-레닌주의 前衛黨으로서 「예멘사회당」(Yemen Socialist Party)을 설립하였다. 이스마일은 당의 개혁과 아울러 헌법을 개정하여 당과 정부기관의 서열을 蘇聯式으로 규정하였다. 새 헌법에 의해 예멘사회당은 정치국(politiburo),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당 인민회의(party congress)로 구성되었다. 당 인민회의는 5년마다 소집되며 중앙위원회 위원 47명을 선출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국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黨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행정부는 당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政府機構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최고회의 간부회(presidium), 최고회의(supreme people assembly) 그리고 각 부처 장관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스마일은 당과 정부기구를 이같이 소련식으로 개편한 후 예멘사회당 당서기장직과 대통령직을 겸직하였다.

1978년 예멘사회당은 26,000여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군과 각종 사회단체에 黨 細胞組織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멘사회당은 84,000명으로 구성된 노동자연맹, 31,000명으로 조직된 예멘민주청년회, 10,000명의 여성총연맹 등을 黨의 외곽단체로 결성하였다.<sup>10)</sup>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남예멘의 당과 정부기구는 소련식 正統 社會主義 體制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지

10) Sterett Pop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in George E. Delury, ed., *World Encyclopedia of Political Systems and Parties*, vol. 2 (New York: Facts on File Publications, 1987), p. 1279.

만 실질적인 제도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남예멘 지도층 내부에 동질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남예멘 지도층 내부에는 教條主義的인 맑시스트가 있는가 하면,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지하지만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과 부족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예멘사회당은 사실상 單一體制를 갖기 보다는 개인적 친분 관계, 부족 및 지역적 연계로 뭉친 파벌집단의 연합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은 파벌로 분열되어 있는 한편 행정부는 計劃經濟體制를 운영할 만큼 충분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군대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특정 부족에서 많이 충원되었고 장교들은 같은 지역출신의 정치가들과 사적인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스마일은 원래 북예멘 출신으로 남예멘 국민들 사이에 支持基盤이 약했다. 남예멘인들은 이스마일이 북예멘 출신이기 때문에 북예멘 혁명에 집착하여 남예멘인들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1979년 「민족민주전선」의 革命運動을 지원하여 북예멘과 전쟁을 치룬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국가들의 원조가 중단되었지만 소련 및 동유럽권으로부터 경제적 원조가 기대했던 만큼 증가하지 않자<sup>11)</sup> 黨과 정부 관료들도 이스마일의 對蘇 依存的 強

11) 1980년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원조는 1억 5,300만달러였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과 중국이 각각 1억 2,700만달러와 8,400만달러를 원조하고 있었다는 것

硬路線에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다. 남예멘 출신 알리 나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과 정부내의 실용주의자들은 자기 부족출신의 지지를 받아 이스마일 중심의 指導體制를 잠식하였다. 결국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이스마일이 1980년 4월 21일 소련으로 망명함으로써 이스마일 정권은 2년만에 끝이 났다.

당 총서기와 대통령 및 총리직을 겸직하게 된 알리 나셀은 북예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주변 아랍국가들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等距離外交를 추구하여 소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실용주의자인 알리 나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1982년 세계적인 油價 下落으로 아랍 산유국들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아랍국가들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해외 근로자들의 送金은 크게 줄어들어 남예멘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다. 1984년 북예멘에서 석유가 발굴되자 북예멘 경제는 낙관적으로 전망되는 데 비하여 남예멘 경제의 장래는 비관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예멘의 앞날에 대한 이같은 대조적인 전망은 남예멘 주민들에게 커다란 心理的 衝擊을 주었다.

남북예멘간 경제력의 차이가 커지게 되자 친소 강경파들은 경제의 침체원인이 社會主義 經濟原則을 고수하지 않은 데 있

---

을 고려할 때 소련의 원조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Halliday, "Soviet Relations with South Yemen,"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 222.

다고 주장하며 「민족민주전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알리 나셀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反統一勢力이라고 비난하였다. 당내에서 알리 나셀의 반대파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자 모스크바에 망명하고 있던 이스마일 前대통령은 1984년 말 귀국하였다. 권력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알리 나셀은 수세에 몰려 총리직을 포기하게 되었고, 강경파 인사들은 국방장관직 등 政府要職에 복직되었다. 당내 입지가 약화된 알리 나셀 대통령은 1986년 1월 13일 예멘사회당 정치국원들을 초청해 놓고 기관총으로 反對派를 사살하였다. 이 사건 이후 알리 나셀은 그의 부족들의 본거지인 아비안(Abyan)에 피신하였다. 한편 강경파들은 軍의 지원을 받아 아덴에서 流血暴動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였다. 부족세력의 지지를 받은 알리 나셀과 군부의 지원을 받은 강경파들은 1월 24일까지 무력충돌을 계속하였다. 內戰으로 총 1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 75명 중 50명이 사망하거나 축출되었다.<sup>12)</sup> 2주간의 내전은 알리 나셀과 그의 추종자 약 2만명이 북예멘으로 피신함으로써 끝이 났다.

알리 나셀을 추방한 이후 당과 정부의 젊은 관료와 군부는 集團指導體制를 구축하고, 1986년 2월 알아타스(Haidar Abu Bakr al-Attas)와 알비드(Ali Salim al-Baydh)를 각각 최고 인민회의 간부회 의장(대통령)과 예멘사회당 書記長에 추대

12)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91* (London: Europa Publication Ltd., 1990), p. 954

하였다. 알아타스 정권은 1986년 10월 최고인민회의의 111명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여 정통성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부가 행정경험이 부족한 젊은 관료들에 의해 非效率的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남예멘 정부가 명백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소련의 開放·改革措置의 효과가 남예멘에 파급되어 오기 시작하였다.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중동지역 산유국들과 화해를 추구하는 한편, 남예멘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개방·개혁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남예멘 정부는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는 國民和合 措置를 취하여 1987년 7월 북예멘에 피난하였던 사람들의 귀국을 허용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1989년 초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남예멘에 대해 개방·개혁을 권유하는 한편 軍事·經濟援助를 감축한다고 통보하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으로 지금까지 남예멘을 지탱해 온 소련의 정치·경제적 지지가 붕괴되는 것을 느낀 남예멘 지도층은 일련의 改革措置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아타스 정권은 먼저 정치체제의 개혁에 착수하여 1989년 7월 정부와 집권당과의 관계를 多黨制의 정치체제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였다. 經濟部門에 있어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에 개인 투자를 허용하고, 예멘 국립은행에서 발행한 證券을 사우디 아라비아의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

였으며, 사기업부문 호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농산품과 소비품에 대한 정부의 價格統制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남예멘 정부는 사회·문화영역에서의 자유화를 위해 言論法과 教育法을 개정하여 종교잡지 발간을 허용하고, 학교에서 이슬람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예멘에서 이러한 개방·개혁 조치가 실시되던 중 남북예멘의 통일을 촉진할 것을 주장하던 북예멘 대통령 살레가 頂上會談을 위해 1989년 11월 아덴을 방문하였다. 살레의 아덴 방문은 남예멘인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켰다. 아덴 시민들이 살레를 열렬히 환영하며 통일을 외치게 되자 남예멘에서 社會主義 實驗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각한 남예멘 지도층은 통일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남예멘 지도층 내의 국방부, 내무부, 정보부처의 기관장들을 포함한 強硬派들은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였으나 지도층 다수는 북예멘 인구의 1/4 밖에 되지 않은 남예멘이 統一政府의 관료직을 북예멘과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에 만족을 표시하고 통일을 지지하였다.<sup>13)</sup> 1989년 11월 아덴 頂上會談에서 통일에 합의한 이후 남예멘 정부는 정치범 석방과 비밀경찰제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남북예멘간 政治體制的 差異를 좁혀오다 1990년 5월 22일 북예멘과 통일을 달성하였다.

13) Charles Dunbar, "The Unification of Yemen: Process, Politics, and Prospects," *The Middle East Journal*, vol. 46, no. 3 (Summer 1992), p. 466.

## 2. 經濟體制와 産業實態

### 가. 北예멘

북예멘 국토의 총 면적은 194,250km<sup>2</sup>이고, 1989년 현재 총 인구는 약 950만명이다. 열대기후의 영향으로 사막 등 불모지가 많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외적으로 북예멘은 降雨量이 풍부하여 경작면적이 전국토의 14%에 달한다. 主食으로 수수, 옥수수, 콩, 밀, 기장벼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여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輸出作物로서는 커피, 까트(qat), 목화가 재배되고 있다. 목화 재배는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시적으로 幻覺作用을 일으키는 까트는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커피 생산을 능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부 산악지대에서는 암염, 철강, 구리, 석탄 등이 생산되어 천연자원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북예멘은 회교군주국으로서 전통적인 農耕社會를 유지하였으나 1962년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이집트의 후견하에 근대적 시장경제체제와 貨幣制度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북예멘은 당시 이집트의 경제체제를 모방하여 목화, 섬유, 시멘트 생산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國有化하거나 정부와 민간인이 합작투자로 운영하는 반면, 영세한 규모의 공장과 수공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공공경제와 민간경제를 혼합한 混合經濟體制가 북



예멘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이 되었는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1970년 내전이 종식된 이후 실시되었다.

1971년 이리아니 정권은 유엔개발기구나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中央銀行을 설립하고 新貨幣인 예멘 리알(rial)을 발행하였다. 1972년에는 「중앙계획국」(Central Planning Organization)이라는 經濟企劃部署가 설립되어 북예멘 최초로 경제·사회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발표되었다. 1974년 출범한 함디 정권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재정원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經濟成長政策을 추진하였다.<sup>14)</sup> 함디는 정권을 잡은 이후 3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발, 시멘트 공장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6년에 다시 5個年 經濟開發計劃(1977~81)이 수립되었으나 1977년 함디가 암살된 후 정치적 혼란으로 이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북예멘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정치적 안정이 회복된 1982년에야 다시 추진될 수 있었다.

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技術人力 및 財政의 부족으로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북예멘 정부의 통제·지도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예멘의 民間經濟는 공공경제와 유기적 연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14) 1973년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연간 2,500만달러의 재정원조를 약속받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Robert D. Burrowes, *The Yemen Arab Republic: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62~1986*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 45.

북예멘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은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었다. 1970년 내란이 끝나고 북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관계가 정상화되자 북예멘인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집단으로 이주하여 취업하였다. 그 결과 1972년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1971년보다 두 배 증가하고 1974년의 송금액은 1972년 액수의 두 배가 되었다. 1975년 현재 북예멘 노동자 약 35만명이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국가에서 취업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송금액은 1975년에 2억2천5백만 달러에서 1976년에 5억2천5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sup>15)</sup> 1970년대 말에 이르러 해외 근로자는 약 백만명에 달하였으며, 약 17억 달러에 이르는 이들의 송금액이 북예멘 GNP의 40%를 차지하였다.<sup>16)</sup> 해외 근로자들이 보내준 송금으로 소규모의 상점과 건축업체들이 번성하면서 북예멘에서 자본주의 초기형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海外 송금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외화가 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급격히 증대한 외화가 국민들의 소비성향과 투자욕을 자극하게 됨에 따라 消費品 수입업체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토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해외 취업자의 증대와 그에 따른 통화량의 증대는 북예멘 사회에 노동력 부족과 임

15) Ibid., p. 66.

16) M. S. El Azhary, "Aspects of North Yemen's Relations with Saudi Arabia,"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 206; J. E. Peterson, *Yemen: The Search for a Modern Stat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 17 참조.

금인상을 초래하여 국내 製造業 部門의 성장이 정체되었다.

살레 정권은 집권 이후 계속되었던 혼란을 수습하고 1982년부터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82~86)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2년부터 세계적인 經濟沈滯의 영향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원조가 줄어들고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 감소하였다. 더욱이 1982년 중부 고원 지대에서 地震이 일어나 1,500명이 사망하고 4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들 재해민 구조와 가옥 재건에 재정을 탕진하였다. 1983년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 북예멘 정부는 1984년에 緊縮財政政策을 실시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한편 북예멘 경제가 회복될 무렵 남예멘과 國境地帶에 위치한 마립(Marib)지역에서 미국계 회사인 헌트석유회사(Hunt Oil Company)에 의해 石油가 발굴되자 북예멘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북예멘은 1986년부터 시장판매를 위한 石油生産에 착수하여, 1987년 말부터 한국, 미국, 서독 등에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북예멘은 1989년에 이르러 하루 18만배럴을 생산함으로써 석유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석유생산 덕택으로 북예멘 경제는 1980년대를 통하여 연 평균 6%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1988년 1인당 GNP는 약 650달러에 달했다.<sup>17)</sup>

---

17) Pertti Hamalainen, *Yemen: A Travel Survival Kit* (Berkeley: Lonely Planet Publications, 1991), p. 29.

통일을 달성하기 이전 북예멘에서는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석유개발로 경제전망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지역적으로 볼 때 近代的 産業은 북예멘 중심부에 위치한 수도 사나, 중서부 해안지역의 근대적 항구도시 호대이다(al-Hudayda), 그리고 남부지역 대도시 타이즈(Taiz)의 3대 도시와 이들을 연결하는 中南部 地域에서만 발달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로망, 교통시설, 전력, 수자원, 교육, 위생시설 등 社會間接資本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1989년 산업인구의 63.4%가 농업(산림과 어업 포함)에 종사하였으며 農業生産이 GDP의 1/4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업, 제조업, 전력 등의 산업부문은 GDP의 26%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제조업은 GDP의 12%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 당시 북예멘 경제는 아직 농업위주의 經濟構造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 나. 南예멘

남예멘은 국토의 총 면적이 336,869km<sup>2</sup>로 한반도의 1.5배에 달하고 있으나, 1989년 현재 총 인구는 250만명에 불과하였다. 남예멘에서는 강우량이 극히 적어 사막 등 불모지대가 많고 전국토의 1% 지역에서만 耕作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남예멘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천연자원도 결여되어 산업기반이 발달되지 못하였다. 1967년 남예멘이 독립할 당시 아덴 지역은 仲介貿易港으로서 상업과 서비

스업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아덴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통적 경작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農業地域이었다. 중개무역항으로 발전된 아덴의 산업기반은 취약하여 영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精油施設을 제외하고는 근대적 공장이 거의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1967년 아덴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이 철수하고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자 아덴은 중개무역항의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하였다.

남예멘은 독립을 달성한 직후 약 2년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經濟政策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1969년 6월 「민족해방전선」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남예멘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産業國有化와 土地改革을 단행하였다. 당시 루바이 알리 정권은 먼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은행, 무역회사, 보험회사 등을 국유화하고, 對外貿易은 국영기업을 통하거나 정부의 담당부서를 통해 행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섬유, 피혁공장 등의 기업체에 대해서 국영기업, 협동기업, 사유기업 등으로 所有形態를 구분하였는데 그중 규모가 큰 기업체는 國營企業形態로 운영하였다.<sup>18)</sup> 그러나 영국인 소유의 정유시설에 대해서는 영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1977년 자발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다. 또한 남예멘 정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수립

---

18) Tareq Y. Ismael and Jacqueline S.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he Politics of Socialist Transformation* (London: Frances Pinter, 1986), p. 100.

하고 집행할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國有化 措置를 철저히 실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1970년대 말까지 남예멘 산업시설의 절반 정도가 국유화되었다.<sup>19)</sup>

한편 독립 당시 남예멘 농촌지역에서는 部族長이나 술탄 등 전통적 지배계층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루바이 알리 정권은 전통적 지배계층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기 위해 土地改革을 단행하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대농장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후 남예멘 정부는 農業 集團化政策을 추진하여 1980년까지 농지의 70%를 44개 협동농장 소유로 만들고, 10%는 35개 국영농장의 소유로 만들었다.<sup>20)</sup> 나머지 20%는 개인소유로 되었는데 토지의 個人 所有限度는 일반적으로 40에이커(acre)로 제한하고 관개수가 설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20에이커로 제한하였다.<sup>21)</sup>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개인소유 농지가 점차 확대되었다.

국유화 조치와 土地改革을 단행한 이후 남예멘 정부는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에 3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고 1974년부터 1978년까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다. 經濟開發計劃 費用은 대부분 소련, 중국, 동독 등 사회주의 국

19) Cigar, "South Yemen and the USSR: Prospects for the Relationship," p. 775.

20)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 86.

21) Halliday, "Soviet Relations with South Yemen," p. 218.

가의 원조로 충당하였다.<sup>22)</sup>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와 더불어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 남예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 말 남예멘 勞動力의 약 15%인 85,000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 GNP의 약 70%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3)</sup> 남예멘 정부는 해외 근로자의 송금을 관리하며 産業成長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해외 근로자의 증대와 더불어 기술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 형제나 친척이 보내주는 돈으로 편히 생활할 수 있어 低賃金을 받고 취업하려고 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다.

이스마일 정권은 1979년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예멘과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부족 등으로 이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1980년 알리 나셀 정권은 實用主義政策을 택하여 아랍국가들의 원조를 끌어들이며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81~1985)을 추진하였으나, 油價下落과 함께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이 줄어들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

22) 1970년대 남예멘에 대한 海外援助는 소련, 중국, 동독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50%,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아 등 아랍사회주의권에서 15%, 기타 아랍권 15%, 유엔과 國際機構에서 10%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초 시기에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의 원조가 증가하였으나, 남예멘의 海外援助는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 89.

23)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 5; Hamalainen, *Yemen*, p. 30.

두지 못하고 전체 산업생산은 1982년 17.3%에서 1985년 9.9%로 하락하였다.<sup>24)</sup>

남예멘 정부는 1986년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86~1990년)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1986년 내란으로 GNP의 약 10%에 해당하는 1억2천만달러의 經濟的 損失을 입게 되어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sup>25)</sup> 이 기간동안 오히려 원자재 및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경제는 쇠퇴하였고, 1인당 GNP는 1984년 570달러에서 1987년 450달러로 감소하였다.<sup>26)</sup>

한편 1987년 남예멘 샤브와(Shabwa)지역에서 油田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석유개발을 담당한 소련 회사 테크노엑스포트(Technoexport)가 낙후된 기술과 재정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에 따라 市場性 있는 석유생산은 지연되었다. 1989년까지도 남예멘의 하루 석유생산은 6,000배럴에 불과하여 수출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 초기에는 經濟改革 등의 조치를 통하여 남예멘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술관료의 부족, 재원의 부족 및 관리능력의 결여 등으로 經濟計劃이 제대로 수립·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사회주의

24) Volker Stanzel, "Marxism in Arabia: South Yemen Twenty Years after Independence," *Aussen Politik*, vol. 39 (3rd Quarter, 1988), p. 269.

25)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 p. 13.

26) *Ibid.*



이념에 따라 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경제적 목표 또한 달성되지 못하여 1985년에는 私經濟 部門이 GNP의 50.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sup>27)</sup>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주민들의 근로 의욕이 감소된 상태에서 내란을 겪음으로서 남예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남예멘의 GNP는 年平均 3.2%씩 감소하였고 1인당 GNP는 5.9%씩 감소하여 만성적인 식량·의약품·소비재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남예멘 경제는 소련의 經濟援助가 1989년에 4억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sup>28)</sup> 이러한 상황에서 남예멘 지도층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예멘과 통일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점차 자각하였다.

통일 당시 남예멘 産業人口의 32.7%가 농업(산림과 수산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농업생산이 GDP의 16%를 차지하였으나 主食의 2/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빈약한 농업에 비해 漁業은 잘 발달되어 수산물 수출이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 되었다. 1988년 산업(광업, 제조업, 전력)은 GDP의 21.3%를 차지하였다. 정유소는 남예멘 産業生産의 80%를 차지하여 산업의 기간을 이룬 반면, 제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7) Stanzer, "Marxism in Arabia," p. 269.

28)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 p. 13.

### 3. 社會構造와 文化生活

#### 가. 北예멘

예멘의 전통적 사회구조는 종교지도층이 사회계층의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封建的 身分制 社會로 이루어져 있었다. 1962년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북예멘 정부는 사회개혁을 시도하였으나, 1970년 왕당파와 연립정부를 수립한 이후 정부의 개혁의지는 쇠퇴하였다. 북예멘의 社會構造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 이후 근대적 교육의 확산과 소규모 자본주의 경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전통적 신분제가 서서히 붕괴되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북예멘인들은 傳統的 身分에 구애됨이 없이 직업을 택하지만 결혼은 여전히 동일한 신분계층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북예멘 정부는 계층간의 垂直的 分裂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족간·지역간의 水平的 分裂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북예멘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이디 부족과 사파이 부족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자이디 부족은 북부와 동부 및 중앙고원지대에 살고 있는데 사파이 부족보다 好戰的인 전통을 지니고 있다. 사파이 부족은 디하마 해변과 남쪽지역에 살고 있으며, 자이디 부족과는 달리 도회지에 살고 있고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다. 사파이 부족은 人口移動率이 높고 부족적 유대가 자이디 부족

보다 약한 편이나, 자이디 부족의 박해를 받으면서 강한 대항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자이디 부족과 사파이 부족간의 대립은 북예멘 社會統合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북예멘의 부족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영농민으로서 단검과 소총 등의 무기를 소유하는 등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도시인들은 부족적 관습에 얽매어 있지 않다. 그러나 統一前 사나, 호대이다, 타이즈 등 3대 도시에는 각각 70만명, 25만명, 17만5천명이 살고 있어, 도시인구를 모두 합쳐도 전체인구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북예멘의 都市化 比率이 낮은 이유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기보다는 취업하기 위해서 인근 産油國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북예멘에서는 원래 남부 사파리 부족 가운데 해외 이주자의 비율이 많았으나 1970년대 이후 모든 부족의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 들어 북부 부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국가에 就業을 위해 이주함으로써 부족세력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농촌 젊은이들이 2~3년씩 해외에 거주하며 근대적 교육과 생활양식에 노출되면서 북예멘 농촌의 傳統的 生活樣式은 근대화 물결에 침식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29)</sup> 그러나 북예멘에서는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 文盲率이 70%를

29) Peterson, *Yemen: The Search for a Modern State*, p. 26.

넘어 전통적 관습이 급격하게 폐지되지는 않고 있다. 북예멘 사회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남자는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으며, 家父長的 傳統이 중시되어 여성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예멘 여성들은 시청직원, 은행원, 판매원, 학교 교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어 아라비아반도 국가 중에서는 여성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傳統的인 生活樣式을 타파하지 못한 북예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까트를 씹는 습성에서 나타난다. 까트는 일시적인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나뭇잎으로 마약은 아니지만 북예멘 사람의 과도한 지출을 초래하고 근로시간을 잠식하여 社會·經濟發展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북예멘 남성의 90%, 여성의 10% 이상이 매일 까트를 씹으며 오후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sup>30)</sup> 정부는 까트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 하였지만 국민들의 까트 씹는 습관을 근절시키지 못하였다.

북예멘의 교육제도는 新舊制度가 병존하며 전통학교에서는 문자를 쓰는 방법과 코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新學校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제로 되어 있는데, 1980년대 말 국민학교에는 취학연령 아동의 76%, 중고등학교에는 31%가 다니고 있었다.<sup>31)</sup> 북예멘에 大學은 1971년에 설립된 사나 대학만이 있을 뿐이다.

30) Wenner, *The Yemen Arab Republic*, p. 52.

31) *The Europa World Yearbook 1992*, p. 3171.

한편 통일 이전 북예멘에서는 技術人力이 부족하여 전문분야에는 많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특히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도 부족하여 이집트나 수단 등 외국인이 교사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sup>32)</sup> 그러나 북예멘 정부는 外國人 教師의 숫자를 감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멘인 교사의 봉급은 정부가 지불하는 한편 외국인 교사의 봉급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변 아랍국가들의 財政支援에 의해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에서 외국의 재정원조에 대한 의존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학생들 대부분이 이집트인 교사에게 배움으로써 북예멘인의 국민적 가치관과 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어렵게 되었다.<sup>33)</sup>

#### 나. 南예멘

남예멘의 人口는 약 250만명에 불과하고 전체 인구의 1/3이 도시에 살고있으며, 수도인 아덴에만 4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덴과 그 이외 지역을 분리하여 통치한 영국 식민통치유산과 독특한 지리적 특성으로 남예멘 社會構造는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예멘 독립 당시 아덴은 영국의 직접적인 植民統治의 영향으로 근대화된 반면, 내륙 지역에는 전통적인 부족관계가 뿌리깊게 남아 있었다.

32) Hamalainen, *Yemen*, p. 30.

33) Wenner, *The Yemen Arab Republic*, p. 93.

민족해방전선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남예멘 사회를 맑스주의 이념에 따라 개혁하였다. 산업시설의 國有化와 土地改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술탄과 부족장을 제거하고 전통적 지배계급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부족집단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부족세력이 단합하여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社會主義政權은 훈련된 인력 및 재정의 결여로 농촌사회에 침투하여 철저한 사회개혁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부족들은 산개되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지만, 그들의 지역과 촌락 수준에서는 傳統的 慣習法을 유지하며 부족적 생활양식과 충성심을 보존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남예멘 주민들은 수니파 사파이 계열의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남예멘 정부는 맑스주의적 唯物論에 입각하여 無神論을 선전하며 종교활동을 금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주의 정권 초기에는 이슬람 승려들을 모욕하거나 살해하는 등 宗教教壇에 대해 폭력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sup>34)</sup> 그러나 종교 탄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과 주변 아랍국가들의 비난이 거세어짐에 따라 정부는 종교집단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자제하게 되었다. 몇 차례의 試行錯誤를 통해 주민들의 강한 보수적 성향을 의식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은 이슬람을 국교로 인정하고 이슬람 축제가

34) Bidwell, *The Two Yemens*, p. 253.

간을 준수하면서 종교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남예멘 정부는 모든 宗教團體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사원 및 종교학교의 운영자금과 승려들의 생활비를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슬람 교리를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였다. 즉 이슬람교 원리에서 神과의 관계를 격하시키고, 解放神學的인 면을 부각하여 착취와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을 강조하였다.<sup>35)</sup>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 이슬람이 교리에 대해 해방신학적 해석을 부여함에 따라 전통적인 教理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민중적 이슬람이라는 명칭하에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79년 이란에서 회교원리주의자 호메이니에 의한 혁명이 성공한 이후 아랍국가들 사이에 復古主義 運動이 부활하였다. 남예멘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 해외취업 후 귀국한 노동자들을 통해 복고주의 운동이 전파되었으며, 학생들의 이슬람 原理研究會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많은 여성들이 이슬람 복고풍 의상을 입고 다녔다. 민중적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복고주의 운동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전개할 만한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민중적 이슬람의 原理主義 運動이 실질적인 정치문제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남예멘 정부는 주민들을 합리적인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

---

35) Norman Cigar, "Islam and the State in South Yemen: the Uneasy Coexistence," *Middle Eastern Studies* (1990), p. 356.

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통적 가치체계가 주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정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맑시즘은 사회에 깊이 침투되지 못하고 理想的 上部構造의 역할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개혁 노력은 국민 보건, 교육 및 여성의 지위향상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남예멘 정부는 社會·經濟的 近代化에 장애가 되는 까트의 생산과 소비를 법으로 금지 시키고 대신 술집과 유흥장 개업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의사와 의료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가족제도와 남녀차별 등 전통적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一夫多妻制를 법으로 금지하고 여성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1974년 남예멘 정부가 제정한 가족법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족법으로 평가되었다.<sup>36)</sup>

아울러 남예멘 정부는 여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의 社會的 活動을 장려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고 인민회의 의원직 6석,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직의 10%를 女性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관과 관습이 예멘인 사이에 워낙 깊이 뿌리박고 있어 여성 지위향상 노력은 사회주의자들이 기대했던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義務教育의 대상자인 7~14세 사이의 취학연령 아동 중 의무교육을 받는 여학생은

---

36) Bidwell, *The Two Yemens*, p. 312.



50%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就業率도 1965년 4.4%에서 1981년 5.8%로 1.4%가 증가하였을 뿐이다.<sup>37)</sup>

한편 남예멘 정부는 독립 직후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사 등 주요 언론기관을 국유화하고 教育機關을 확대하였다. 사회주의 정권은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가치관과 도덕을 주입시키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고 학교교육을 산업생산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예멘 정부는 각급 학교를 확충하고 8년간의 의무교육제도를 신설하였다. 高等教育은 기술교육과 인문교육 분야로 나누고 2년에서 5년까지 교육기간의 차이를 두었다. 남예멘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조로 남예멘인들의 文盲率이 1967년 97%에서 1985년 59%로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sup>38)</sup> 남예멘의 국민학교는 1967년 329개에서 1977년 976개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동안 7개에서 25개로 증가하였다.<sup>39)</sup> 그리고 남예멘은 1975년 아덴에 대학을 설립하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여 교육, 의료, 기술 분야 등에 外國人을 고용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4. 綜合 評價

지금까지 기술한 남북예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37)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 126.

38) Stanzel, "Marxism in Arabia," p. 270.

39) Ismael,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 120.

體制的 特性과 實態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양 체제간의 차이와 아울러 유사성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정치이념과 체제면에서 남북예멘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예멘은 이슬람교의 원리를 국가이념으로 한 立憲共和制인 반면, 남예멘의 정치체제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一黨獨裁體制였다. 남북예멘의 실질적인 정치구조는 각자 독특한 정치이념하에 계속 변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북예멘의 정치권력은 보수파와 공화파가 聯立政府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정치집단의 세력균형하에 유지되었다. 보수적인 부족세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하여 정부의 정책이 지방에까지 침투되지 못하였고 정권의 변동은 부족세력의 지지에 따라 좌우되었다. 그러나 정부권력은 군부, 행정관료 그리고 부족세력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일인에게 점차 집중되었고 一人 獨裁體制下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남예멘은 정치권력을 당과 국가기구로 집중화시키고 비교적 일관성있는 官僚體制를 통하여 사회세력을 비교적 잘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층 내부는 친소파와 친중공파 또는 교조주의자와 실용주의자 등으로 분열되어 파벌싸움이 전개되었다. 지도층 내부의 權力鬭爭은 결국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북예멘은 공식적인 정치이념 및 권력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유사점이 많았다.

남북예멘 정부는 社會統制力면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양 정부 모두 재정적으로 자립능력이 결여되어 해외원조 없이는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남북예멘은 體制維持能力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문화와 행태에 관해서도 유사성을 보였다. 양 체제 모두 憲法上の 공식적 권한과 실질적 권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권력은 소수 집권자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집권자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유대와 부족적 충성심에 의존하게 되었다. 남예멘은 북예멘보다 행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權力鬭爭은 이념적인 것보다 부족적·지역적 연고를 따라 전개되어 남예멘의 권력구조 역시 개인적 유대와 부족적 충성심에 의해 유지되었다.

남북예멘 모두 주민들의 政治意識은 낮은 편이었고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남북예멘 주민들은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그리고 정권교체는 선거를 통해 民主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신 암살이나 쿠데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남북예멘 국가 수립의 초기에는 남예멘이 북예멘보다 더욱 빨리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남예멘은 黨이 허락하는 한도내로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반면, 북예멘은 남예멘보다 심한 정치적 불안을 겪었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政治的 民主化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북예멘에서

는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확대되는 반면 남예멘에서는 주민들의 지지가 쇠퇴해갔다. 즉 북예멘은 정치안정과 민주화의 면에서 발전한 반면 남예멘은 政治發展 면에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남북예멘의 정치가 이념과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듯이 남북예멘의 經濟 또한 이념과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

북예멘의 經濟理念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었고 남예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예멘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國有化하여 국가가 직접 운영하면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경제와 민간경제가 양립한 混合經濟體制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한편 남예멘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물적·인적 자원의 결여로 經濟計劃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남예멘의 산업시설은 절반 정도가 국유화되었지만 나머지 반은 민간경제에 의해 운용되었다. 따라서 남북예멘의 經濟體制는 이념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예멘의 산업구조와 경제력은 상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양국의 경제를 巨視經濟的 指標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 보면 많은 유사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남예멘의 경

우 북예멘에 비해 産業活動人口 중 도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절대적인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하면 남예멘 산업활동인구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었다. 經濟力에서는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우세하여 약 40% 정도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경제성장은 각각 해외원조 및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自生力이 결여되어 있었다. 남북예멘 정부는 해외 원조와 해외근로자들의 송금이 감소되자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예멘간에는 산업발전 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예멘 경제의 相互 補完性은 일정한 한도내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예멘은 정치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社會構造的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북예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발전이 정체되었던 반면 남예멘은 상당한 정도의 社會·文化改革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남예멘 또한 사회·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남북예멘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비교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북예멘의 사회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북예멘에서는 부족간의 대립이 정치화되어 社會統合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사회계층간의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지속되고 있었던 반면, 남예멘에서는 부족장과 술탄 등 전통적 지배계급이 타도되어 부족세력이 脫政治化되었고 사회계층간의 경제적 격차

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상에 따라 사회구조를 재편성하려는 남예멘 정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종교활동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강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슬람교를 國教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남예멘 사회의 전통적 문화와 생활양식을 제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는 部族的 紐帶와 忠誠心이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북예멘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예멘의 法制度 및 教育水準을 비교하여 보면, 남예멘이 북예멘보다 진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예멘은 일부다처제와 남녀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였다. 남예멘 정부는 진보적인 가족법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일련의 教育改革을 통하여 문맹율을 감소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남예멘에서는 북예멘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적령기 아동의 취학율이 높았다. 그러나 남북예멘에서 모두 高等教育 機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남북예멘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정치적 안정과 민주발전면에서 앞서 있었고 경제력에서 우세하였으나 社會·文化面에서는 후진성을 보였다. 남북예멘은 분단상태에서 정치적 대립을 겪고 있었지만 양국의 經濟體制는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남북예멘의 사회·문화 구조

에는 이질성이 존재하나 이슬람 문화와 전통적 생활양식을 공유함으로써 두 지역 주민들간의 사회의식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대립적인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같이 남북예멘은 국력의 격차가 크지 않고 社會·經濟的 同質性이 상당한 정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예멘 정부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통일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第Ⅳ章 南北예멘의 統一過程

### 1. 南北예멘의 統一에 대한 基本立場

예멘은 중세에는 부족적, 종교적 차이로 수십개의 半自立的인 王國으로 분열되었으며, 오토만 터키와 영국의 식민통치 기간동안 두 개의 행정지역으로 분할됨으로써 남북예멘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社會·文化的 異質性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예멘이 아랍문명의 근원지이고 자신들은 고대에 번영했던 왕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긍지에 힘입어 남북예멘인들은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 共同體 意識을 깊이 공유하고 있었다.

1918년 북예멘이 독립한 이후 1950년대까지 예멘 統一運動은 보수적 이맘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맘에 의해 주도된 통일운동은 남예멘 지역의 영국군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 王權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맘의 통일운동은 외세에 저항하는 민족적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예멘인 다수가 이에 동조하였으나, 이맘의 보수적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어 민중들의 열렬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부터 유대를 강화해 오던 남북예멘의 自由主義的 知識人들은 1948년 이맘 야히야 암살사건 이후 북예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아덴으로 피신해오자 상호 교류를 확



대하면서 예멘민족의 장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sup>1)</sup> 즉 남북예멘 지식인들은 近代의 民族國家를 수립하고 보수적인 이념의 통일운동과는 다른 근대적 사고에 입각한 통일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1952년 나셀의 혁명으로 아랍민족주의 운동이 고조되자 남북예멘 지식인들은 북예멘에서 專制政治를 폐지하고 남예멘에서 自治政府를 수립하여 남북예멘의 통일을 주장하며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분단 상황의 특성상 북예멘의 民族主義 運動은 군주정치를 무너뜨리고 근대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반면, 남예멘의 민족주의 운동은 植民地 解放戰爭의 성격을 띠며 발전하게 되었다. 남예멘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은 초기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영국 식민정부의 탄압이 격화되면서 점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이 民族主義 運動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북예멘이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남예멘의 민족주의 운동은 무장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고 남예멘은 결국 농촌에 거점을 형성한 좌익 게릴라 단체인 「民族解放戰線」의 주도하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멘인들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좌익과 우익간의 政治理念을 둘러싼 심각한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남북예멘의 지식인들은 모두 통일을 민족주의 운동의 基本

1) Sultan Nagi, "The genesis of the call for Yemeni unity,"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p. 245~247.

目標로 설정하고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그들 사이에 의견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2)</sup> 이는 당시 남북예멘 지식인들 모두 社會改革思想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동일한 언어와 종교에 기반을 둔 아랍권의 문화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측면도 있었다.

북예멘 지식인들은 남예멘 급진적 좌파세력보다는 보수적이었지만 왕권을 무너뜨리고 傳統的 社會構造를 개선하여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진보적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남예멘 지식인들은 북예멘 지식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예멘에 거주하는 아랍인들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랍권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남북예멘인들은 예멘 통일을 「아랍 통일」(Arab Unity)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고 아랍民族主義 運動의 일환으로서 예멘 통일을 주장하였다.

즉 예멘인들은 예멘 통일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랍권 전체의 통일을 위한 초보적 단계로서 생각하였다. 남북예멘 지식인들은 아랍권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理念的 對立이 발생해도 쉽게 화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랍민족주의 운동의 특성은 남북예멘간의 문제에 다른 아랍국가들의 중재를 용이하게 만들었다.<sup>3)</sup>

1962년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북예멘은 남예멘에서의 反英

2) Helen Lackner, "The Rise of the National Liberation Front as a Political Organization," in Pridham, ed., *Contemporary Yemen*, p. 54.

3) 아랍민족주의 운동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종족적 성격보다 宗教와 혼합된 文

民族解放運動을 지원하였고, 남예멘은 1968년 북예멘 공화파가 내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명의 의용군을 사나에 파병하였다.<sup>4)</sup> 이와 같이 유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1960년대 말 남북예멘 정부는 모두 통일의 當爲性을 받아 들이고 통일에 관련된 부처를 설립하여 연방형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 정부는 각각 사회세력에 대한 통제력이 약했고 지도층 내부는 權力鬭爭에 몰두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1970년 북예멘에서 共和派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영향력에 굴복하여 王政派와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남예멘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좌파세력이 득세하게 되자 남북예멘은 정부차원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내부적 정치분열과 외세의 영향으로 남북예멘간에 理念的 隔差가 커지자 양측 정부는 협상에 의해 통일을 모색하기 보다는 상대방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反政府 勢力들을 지원하는 방침을 택하였다. 그 후 남북예멘 정부는 각기 자기들만이 예멘인들의 민족적 열망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이념과

---

化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아랍민족주의 운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Majid Khadduri, *Political Trends in the Arab World: The Role of Ideas and Ideas in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0), 金定慰 譯, “아랍 민족주의 발생,” 白樂晴 編,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1), pp. 293~312 참조.

4) F. Gregory III Gause, “Yemeni Unity: Past and Future,” *The Middle East Journal*, vol. 42, no. 1 (Winter 1988), pp. 35~46.

체제를 상대방에 부과하는 것을 統一政策의 原則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분단이 고착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예멘 모두 통일을 헌법의 基本理念으로 명시하였으나 통일에 대한 남북예멘의 기본 입장은 상당히 달랐다. 통일에 대한 북예멘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예멘이 歴史的 正統性을 지니고 있고 인구나 경제력에서 우월하므로 남예멘은 즉각 정부를 해체하고 북예멘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예멘 정부는 조건없는 즉각 통일을 주장하고 「자문회의」 議席의 일정수를 남예멘 대표를 위해 배당하였다. 그러나 공화파와 왕정파가 연립정부를 수립한 이후 북예멘 정부는 공화국의 이념에 따른 政治·社會改革을 실시하지 못하고 부족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예멘을 통괄하는 正統性을 가졌다고 주장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북예멘의 경우 부족과 지역에 따라 統一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북부 자이디 부족은 부족장들을 살해·추방한 남예멘 정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였으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북부 자이디 부족이 統一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었던 반면 남부 사파이 부족은 남예멘과의 통일을 열렬히 지지하는 편이었다. 이같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상태에서 북예멘 정부의 無條件的 統一 주장은 북예멘 정부가 초기에 통일 정책의 명백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예멘은 1967년 독립 당시의 국호인 「남예멘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South Yemen)을 1970년 憲法에서 「예멘인민공화국」(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으로 바꾸고 민주적으로 수립될 통일예멘의 正統性이 자기들 편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예멘인들은 일반적으로 남쪽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근대화되어 있으나, 북쪽은 半封建 資本主義社會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sup>5)</sup> 따라서 통일은 북예멘에서 봉건적 관료와 자본가를 제거하고 남예멘의 선진적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理念的 優越性을 강조하는 남예멘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북예멘에 대한 적화통일이었다. 남예멘에서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 내부에서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예멘 출신들과 강경파들은 급속한 武力統一을 주장하는 반면, 남예멘 출신의 실용주의자들은 북예멘과 평화공존을 유지하면서 남예멘에서 먼저 사회개혁과 경제성장을 달성한 후 북예멘에 혁명을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實用主義者들은 북예멘 인구가 남예멘 인구의 4배나 되기 때문에 급속한 무력통일을 달성하기 힘들고 급속히 통일이 달성된다 해도 문화적으로 북예멘에 흡수될 우

5) Fred Halliday, *Revolution and Foreign Policy: The Case of South Yemen 1967~19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03.

려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2. 統一協商 過程

남북예멘은 1차 국경충돌을 겪고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統一原則에 합의하였으나 다시 국경분쟁을 치루고 통일논의를 재개하였다. 이같이 통일원칙을 합의한 상태에서 전쟁과 협상을 반복했기 때문에 남북예멘의 統一協商 過程을 질적인 변화단계에 의해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상 남북예멘의 통일협상 과정을 戰爭과 內亂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고 통일논의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① 第1期 協商 過程(1972~1978): 1972년 9월 국경분쟁 이후 리비아 등 아랍국가의 적극적인 중재로 統一論議가 시작된 이래 1977년 7월 북예멘 함디 대통령 암살로 인한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기까지의 기간. ② 第2期 協商 過程(1979~1985): 1979년 2월 남북예멘간 제2차 국경충돌 이후 3월 「아랍연맹평의회」의 중재안에 따라 쿠웨이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재개된 이래 1986년 1월 남예멘의 정변으로 통일협상이 소강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③ 第3期 協商 過程(1986~1990): 1986년 1월 남예멘의 내란 이후 집권한 알아타스 정권의 광범위한 改革·開放 推進으로 통일작업이 급속히 진행되어 1990년 5월 22일 통일이 선포되기까지의 기간.

## 가. 第1期 協商 過程 (1972~1978)

북예멘에서 1970년에 수립된 공화파와 왕정파의 聯立政府는 남예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남예멘해방전선」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집단을 지원하였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남예멘에서 망명해 온 토후세력들을 후원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무장집단을 양성하였다. 이들 세력이 國境地帶에서 남예멘 군대와 산발적인 무력충돌을 하는 가운데 남북예멘간에 적대감이 고조되어 1972년 9월 대규모 국경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리비아 등 「아랍연맹」(Arab League)의 중재로 남북예멘은 곧 休戰에 임하게 되었다. 북예멘의 애이니 총리와 남예멘의 알리 나셀 총리는 1972년 10월 28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總理會談을 개최하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통일원칙에 합의하였다.<sup>6)</sup> 그 당시 남북예멘이 쉽게 타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예멘의 경우 좌경 중도파인 애이니 총리가 政局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애이니는 모스크바 주재대사를 지낸 경력이 있는데 그는 남북예멘관계에 사우디 아라비아 등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고 남예멘과는 적극적인 統合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애이니의 정치적 입장은 남부 사파이 부족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남예멘은 북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의 군사적 압박을 줄이고 「民族戰線」이 권력기반을 확고히

6) 國土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서울: 國土統一院, 1990), pp. 21~25.

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적 고려에서 통일원칙을 합의하였다. 남예멘측은 통일합의가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소함과 동시에 북예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좌익성향의 民族主義 意識이 고조되기를 기대하였다.

197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북예멘의 이리아니 대통령과 남예멘의 루바이 알리 서기장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여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통일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8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에 합의하였다.

「트리폴리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sup> ① 통일예멘의 國號는 예멘공화국으로 하며 수도는 북예멘의 사나로 한다. ② 國教는 이슬람이며 이슬람律法을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한다. ③ 국가는 아랍이슬람 형태를 추구하고 社會的 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예멘사회여건을 추구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④ 예멘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민족적·민주적 정치체제이다. 政治組織의 기본제도를 제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작성한다.

트리폴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의 특징은 남예멘이 이슬람교를 통일국가의 國教가 되는 조항을 받아 들이고, 대신 북예멘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國家理念으로 채택할 것에 동의한 것이다. 통일국가의 국가이념을 사회주의, 민족주의,

7) 트리폴리 聲明書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pp. 26~31 참조.



민주주의로 합의하게 된 것은 트리폴리 정상회담 과정에서 리비아의 카다피(Kadhafi)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통일국가는 사실상 이슬람 정신에 입각한 社會主義 體制建設을 목표로 하였다.<sup>8)</sup> 그러나 보통선거, 자유선거,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 집단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民主主義 理念은 통일국가의 이상으로서 적합한 것이었지만, 당시 북예멘의 정치 현실과는 괴리된 것이었다.

트리폴리 정상회담의 合意事項에 대해 북예멘의 보수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심한 반발을 보였다. 부족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된 「자문회의」는 「트리폴리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통합계획을 추진한 애이니 총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과 군장교들을 사주하여 統一反對運動을 전개하게 하는 한편 북예멘 정부에 대해서 통합 노력을 계속하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가하였다.<sup>9)</sup> 사우디 아라비아의 재정적인 후원하에 북예멘 최대 규모의 部族聯盟인 하시드 부족연맹 총수 아흐말 (Abdallah al-Ahmar)과 바킬 부족연맹의 총수 루훴(Sinan Abu Luhum)은 트리폴리 합의사항을 무산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統一反對運動을 전개하였다. 保守的 部族勢力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통령 이리아니는 1972년 12월

8) 트리폴리 회담중 카다피는 남북예멘 정상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합의를 할 경우 이들에게 각각 4,6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Bidwell, *The Two Yemens*, p. 314 참조.

9) Gause, "Yemeni Unity," pp. 38~39.

28일 애이니 총리를 사임시키고 부족세력 및 사우디 아라비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하지리(Qadi Abdullah-Hajri)를 總理에 임명하였다.

공화파 출신이며 統合運動의 주도세력인 애이니 총리가 실각하고 王政派 출신인 하지리가 총리에 임명되자 남예멘 정부는 북예멘 좌익세력들의 폭동을 배후에서 지원하였다. 남예멘의 지원을 받은 북예멘 좌익세력은 1973년 1월 일부 지역에서 部族長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보수파들에 대항하여 진보세력이 통일운동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大統領評議會 회원이며 실력자인 우스만(Muhammad Ali Uthman)이 1973년 5월 남예멘의 자객에 의해 피살되는 등 정치적 소요가 빈발하였다. 결국 통일에 관한 트리폴리 合意事項은 백지화되었으며, 북예멘 사회세력간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73년 9월과 11월 남북예멘 정상은 아랍연맹의 중재로 회동하여 남북예멘 統合意志를 재확인하였으나 북예멘에서 정치적 혼란이 거듭됨에 따라 통일논의는 중단되었다. 1974년 6월 북예멘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함디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協力關係를 강조하자 남북예멘관계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 함디 정권 초기 남예멘은 함디를 사우디 아라비아의 앞잡이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남예멘의 예상과 달리 함디는 남부 사파이 부족의 정치활동을 장려하는 등 정치개혁을 실시하고 남예멘과는 協助的 關係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남예멘의 루바이 알리 대통령은 남북예멘이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북예멘과 대화를 재개하였다. 남북예멘이 平和共存關係를 유지하자 사우디 아라비아는 남예멘을 전복하려던 초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남예멘의 급진적이고 친소적인 성향을 회색시키고자 1976년 남예멘과 國交를 정상화하였다.

1977년 2월 남북예멘 정상은 국경지대 카타바(Qataba)시에서 회동하여 외무, 경제, 통상, 기획성 장관으로 구성되는 「合同閣僚會議」를 설립하여 6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함디와 루바이 알리는 개인적 친분을 유지하고 統一論議를 계속하였는데 이들에게 통일이란 사실상 平和共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국내적 권력 투쟁의 일부로서 남북예멘 협력관계를 추구하였다. 함디는 민주세력을 이용하여 부족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남예멘의 협조가 필요했던 반면, 루바이 알리는 親蘇派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북예멘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sup>10)</sup> 따라서 이 단계에서 통일논의는 남북예멘 정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예멘의 國內的 問題로 퇴보하게 되었다.

함디 정권과 루바이 알리 정권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 조치

10) Bidwell, *The Two Yemens*, p. 317.

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양자간의 협력관계는 북예멘의 보수세력을 자극하였다. 1977년 10월 11일 함디는 頂上會談을 개최하기 위해 아덴으로 출발하기 전날 암살되었다. 함디에 이어 정권을 장악한 가쉬미는 함디의 政策을 반복하여 보수적 부족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택했다. 그런데 1978년 중반 南北關係가 냉각된 가운데 1978년 6월 24일 가쉬미 대통령이 남예멘 루바이 알리 대통령이 보낸 특사의 가방에 든 폭탄이 폭발하여 사망하였다. 루바이 알리의 사망 이틀후 남예멘에서는 이스마일을 중심으로 한 親蘇 強硬派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루바이 알리를 처형하였다. 이처럼 남북예멘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통일논의는 중단되고 전쟁이 재발하였다.

#### 나. 第2期 協商 過程(1979~1985)

남예멘의 이스마일 정권은 북예멘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여 社會主義 革命을 일으키고자 「민족민주전선」의 무장봉기를 선동하였다. 그리고 1979년 2월 24일 남예멘 군대는 「민족민주전선」의 게릴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지대를 넘어 북예멘 南部地域을 침공하였다. 남북예멘간에 국경분쟁이 재발되자 시리아와 이라크 등 주변 아랍국가들은 남북예멘간의 전쟁이 당시 진행되고 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平和會談에 반대하는 통일아랍전선 구축에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아랍국가들은 「아

랍연맹평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1979년 3월 5일 「남북예멘간 戰爭終熄을 위한 平和案」을 가결하고 양국으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였다.

아랍연맹의 주선으로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과 남예멘의 지도자 이스마일은 1979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쿠웨이트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였다. 양국은 休戰協定을 체결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통일 뿐이라는 데 합의하고 통일계획을 발표하였다. 북예멘 정부가 쿠웨이트 회담에 합의한 것은 혼란한 정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남예멘으로서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반대하고 있었고, 특히 蘇聯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극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합의에 임했다. 당시 남예멘은 분열되어 있던 북예멘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북예멘이 「민족민주전선」을 合法的 政治勢力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북예멘이 이를 수락하자 휴전 및 통일에 합의하였다.

「쿠웨이트 頂上會談」의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sup>11)</sup> ① 통일국가 헌법 기초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위한 기초작업을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② 위 기초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同 草案을 승인한다. ③ 헌법초안의 찬반을 묻는 國民投票 및 통일 입법부의 설치를

11) 쿠웨이트에서 발표된 共同聲明의 자세한 내용은 國土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pp. 53~55 참조.

위한 각료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양국 정상은 쌍방의 수도에서 매월 회의를 소집하여 헌법기초위원회의 작업상황과 기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검토한다.

쿠웨이트 會談에서 남북예멘 정상은 1972년에 체결한 「트리폴리 협정」을 재확인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헌법위원회를 설립하여 統一憲法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통일과정을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72년 협정에서 조약에 대한 실천 책임이 8개 공동위원회에 부과되었으나, 1979년 협정에서는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쿠웨이트 협정을 준수하는 한편, 정부내의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각에서 保守 強硬派와 「남예멘해방전선」 출신 각료들을 축출하였다. 그리고 「민족민주전선」 대표와 停戰協定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족세력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압력 하에 살레 정부는 남예멘과 통일협상을 중단하고 1980년 중반부터 「민족민주전선」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한편 남예멘에서는 1980년 4월 21일 親蘇 強硬派 이스마일이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여 소련에 망명하고 실용주의자 알리 나셀 정권이 들어섰다. 알리 나셀은 북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 和解政策을 택하여 「민족민주전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알리 나셀 정권의 실용주의정책으로 남북예멘은 대화를 재개하고 平和共存을 추구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은 아프카니스탄에 침공하여 고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예멘이 북예멘 및 주

변 아랍국가들과 友好的 協力關係를 추구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련은 1979년 11월 북예멘과 「무기거래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장비를 공급해 주었다. 소련으로서는 남예멘이 무력통일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예멘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북예멘과 유대를 유지하며 북예멘이 對外政策에서 사우디 아라비아편에 서지 않도록 부추기는 것이 소련의 국가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예멘에서 알리 나셀 정권이 들어선 이후 1986년 알리 나셀 정권이 몰락 할 때까지 남북예멘 정부는 평화공존을 統一政策의 基調로 채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남북예멘은 통일논의를 계속하였지만 남북예멘 모두 국내 경제성장에 몰두하여 통일을 달성할 만한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당시 統一政策의 핵심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相互 補完的 經濟成長이었다. 1981년 11월 30일 살레 대통령은 북예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예멘을 방문하여 남예멘의 알리 나셀 대통령과 아덴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였다. 1981년 12월 2일 아덴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兩國 政府의 調停에 관한 문제

- 양국은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예멘最高評議會」를 구성하고, 이 회의의 지시사항을 실천할 「공동각료위원회」

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예멘최고평의회」는 6개월에 한 번씩 定期會議를 개최하며, 「공동각료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한다.

② 經濟에 관한 문제

- 양국의 經濟 및 社會開發計劃을 조정하고 「양국연합공사」에 의한 지질 및 수자원 분야의 공동조사와 개발에 힘쓴다.
- 양국의 농업지도기구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共同機構를 설치한다.
- 카타바-두라인間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 국경마을의 편의를 위한 공동 회합장소 등을 설치한다.

③ 教育 및 文化情報에 관한 문제

- 국경에 共同學校를 설치하고 남북예멘 학생들의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다.
- 「문화·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社會教育에 관한 교과내용을 마련하고 교육과목을 통일한다.
- 라디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여 동시 방영한다.

④ 相互 往來에 관한 문제

- 양국의 국민들에게 서로 양지역을 왕래할 권리를 부여한다.

⑤ 外交政策에 관한 문제



- 제국주의와 시온주의를 반대하며 아랍권에 대한 행동을 통일한다. 그리고 외국군의 군사기지 설치를 반대하고 外國軍의 주둔을 배척한다.
- 내부문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치·군사적 블럭 및 협정을 반대하며 非同盟運動을 지지한다.

1981년 12월 30일 남북예멘 합동헌법위원회는 全文 136條로 된 통일헌법안을 기초하고 승인하였다. 이 草案은 1990년 5월 22일 채택된 통일헌법의 모체가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2)</sup> 國號는 「통일예멘공화국」으로 한다. 首都는 북예멘의 수도인 사나로 한다. 이슬람교를 國教로 한다. 立法府는 양국 국민들이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하며, 行政府는 「통합각료평의회」로 구성한다.

1972년 11월에 합의한 統合原則 내용 중 사회주의,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의 기초로 한다는 규정이 헌법초안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급격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북예멘의 政治的 現實과 아랍보수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기 않을 수 없는 남예멘의 경제적 현실이 타협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일헌법초안의 특징은 국민이 직접선출한 議會制度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의원내각제를 목표로 한 것인지, 대통령제를 목표로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일을

12) 1981년 합동헌법위원회가 기안한 헌법 초안은 위의 책, pp. 243~264 참조.

달성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일이 유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이 統一憲法 草案에 대해서 양국이 議會의 비준을 거쳐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남예멘측의 일방적 발표만 있었지 북예멘측은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여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1982년 작성된 헌법초안은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지만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協力體制를 공고히 해갔다. 1983년 8월 「예멘최고평의회」가 처음 소집되었으며, 1984년 3월에는 「공동각료위원회」가 처음 개최되었다. 그 후 1985년 12월까지 남북예멘은 4차에 걸친 예멘최고평의회, 3차에 걸친 공동각료위원회, 12차에 걸친 사무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같이 定期的 會談을 통하여 살레 정권과 알리 나셀 정권은 相互 信賴를 구축하고, 남북예멘은 역사상 가장 긴 평화공존 기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사회·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였고, 政治的 統合을 추진하기에는 양국 정권 담당자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였다. 살레 정권은 남예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부족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알리 나셀 정권은 북예멘과의 관계를 유지 하는데 있어 親蘇 強硬派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다. 第3期 協商 過程(1986~1990)

남북예멘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기간동안 북예멘의 살레

정권은 政治的 改革을 통하여 정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1985년 석유가 생산되면서 살레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확고해지고, 부족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점차 강화되었다. 북예멘의 살레 정권이 政治的 安定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추구한 반면, 남예멘의 알리 나셀 정권은 경제를 침체상태에서 회복시키지 못하고 政治的 混亂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남예멘의 친소 강경파들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사이 남예멘이 북예멘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었고 軍事力도 강하였는데, 알리 나셀이 집권한 이후 남예멘의 경제가 기울어 북예멘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알리 나셀을 중심으로 한 實用主義派와 親蘇 強硬派間의 권력투쟁으로 남예멘은 1986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내전을 겪게 되었다. 권력투쟁에 패배한 알리 나셀과 그의 추종자 약 2만명은 북예멘으로 망명하였다. 이 시기 남예멘의 政治狀況은 1979년 북예멘의 정치적 혼란 상황과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북예멘이 남예멘 내부 분열을 틈타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살레는 1972년과 1979년의 國境紛爭을 거치면서 남북예멘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소련 등 외세에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였다.

남예멘에서 알리 나셀 정권이 몰락하고 黨과 군부내의 강경파와 「민족민주전선」 출신들이 새로운 지도층을 형성함으

로써 남북예멘관계는 냉각되었다. 그러나 亡命者 問題로 남북예멘관계가 긴장된 가운데 북예멘이 도발해 올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남예멘 지도층은 북예멘과 관계개선을 희망하였다.

1986년 7월 북예멘 살레 대통령과 남예멘 알아타스 대통령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頂上會談을 개최하고 통일논의를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1987년 7월 예멘사회당 서기장 알비드는 북예멘 사나를 방문하여 망명자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알비드를 맞이하여 살레는 남예멘 새 지도부가 망명중인 알리 나셀과 화해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들은 亡命者 問題에 관해서는 타협을 보지 못하였지만, 남북예멘이 이전에 합의한 사항을 집행할 것과 통일논의를 계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1988년 초까지 남북예멘간 대화는 사실상 북예멘 정부, 남예멘 정부, 북예멘에 망명한 알리 나셀 추종자들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화의 초점은 통일이 아니라 망명자들의 歸還과 權利保障에 관한 것이었다. 망명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남북예멘간 대화는 표류하는 가운데 석유가 개발되는 국경지대에서 남북예멘 군대의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예멘은 1987년 11월부터 1988년 2월 사이에 閣僚會談을 4차례 개최하였다. 그러나 1988년 3월 이 지역에 양측 군대가 다시 집결하여 긴장이 고조되자, 북예멘 총리는 대표단을 이끌고 아덴을 방문하여 분쟁지역의

非武裝地帶化와 공동개발을 제안하였다.<sup>13)</sup> 북예멘으로서는 석유의 생산으로 이제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전쟁으로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88년 4월 16일에서 17일까지 북예멘 총리와 남예멘 당 중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남북예멘 고위각료들은 타이즈에서 實務級 閣僚會談을 개최하였다. 「타이즈 회담」에서 양측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마립과 샤브와 접경지역에 남북예멘군대의 중앙검문소를 설치하고 양지역의 천연자원을 共同開發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1988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살레 대통령과 예멘사회당 서기장 알비드는 사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① 예멘최고평의회와 공동각료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 재개, ② 통일예멘의 憲法 採擇을 위한 일정 조정, ③ 국경지대 2,200km<sup>2</sup>에 대한 비무장지대화 및 석유의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sup>14)</sup> 아울러 양측은 「附屬合意書」에서 국경초소를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하고, 두 달내에 두 지역간 주민들이 신분증 제시만으로 自由往來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예멘간 국민왕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당시 남북예멘인들은 아직 실질적인 통일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타이즈 회담」과 「사나 정상회담」은 그때까지 반복되어 온 統一

13) Robert D. Burrowes, "Oil Strike and Leadership Struggle in South Yemen: 1986 and beyond," *The Middle East Journal*, vol. 43, no. 3 (Summer 1989), p. 452.

14) 國土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pp. 21~25.

에 대한 승意와는 달리 2년후 실질적인 통일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되었다.<sup>15)</sup>

남북예멘은 사나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1988년 7월부터 주민들간의 往來가 실시되었다. 수 천명의 남예멘인들은 북예멘을 방문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고, 북예멘인들 또한 자유롭게 남예멘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8년 11월 19일 석유개발에 관련된 남북예멘 장관들은 회담을 개최하고 석유개발을 위해 合作會社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작회사는 자본금 10만불로 사나에 본부를 두고 남북예멘의 이사에 의해 운영되도록 규정되었다. 이같이 1988년 말에는 남북예멘간 自由往來가 실현되고 합작회사가 설립되었으나 북예멘 지도층은 남예멘 망명자 문제가 여전히 미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남예멘 정부의 統一意志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sup>16)</sup> 그들은 남예멘 지도층과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보다 북예멘에 망명해 있는 알리 나셀로 하여금 남예멘 정권을 장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統一을 확실히 달성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남북예멘은 20여년간 합의와 분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북예멘의 지도층 인사들조차도 1988년 협약이 남북예멘간 平和共存을 보장하겠지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되려면 앞으로도

15) Dunbar, "The Unification of Yemen," p. 457.

16) Burrowes, "Oil Strike and Leadership Struggle in South Yemen," p. 454.

50년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sup>17)</sup> 따라서 1989년 봄까지 북예멘의 統一政策은 실질적인 통일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남북대화에서 남예멘을 수세에 몰리게 하고 통일이 성취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남예멘에 떠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남예멘 정부가 취한 開放·改革 措置는 통일을 급속히 촉진시켰다.

1989년 초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에 따라 남예멘 정부에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경제 및 군사원조를 감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소련의 개혁 압력과 경제원조 감소에 따른 위기감을 느낀 남예멘 지도층은 政治·經濟改革 措置를 단행하였다. 남예멘의 개혁조치로 통일 분위기가 성숙되자 북예멘 살레 대통령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규모의 공식 사절단을 이끌고 아덴을 방문하여 1989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頂上會談을 개최하였다. 아덴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981년 기초된 통일국가헌법안을 승인하고, 양측은 6개월내에 의회의 비준을 받고, 비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統一憲法을 확정짓기로 합의하였다. 「아덴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1990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共同閣僚委員會」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양측은 정부 부처의 증설 및 정치범 석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관한 組織法 46개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통

17) Dunbar, "The Unification of Yemen," p. 456.

합과정이 급진전됨에 따라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였다.

이어 1990년 4월 19일에서 22일까지 남북예멘 지도층은 사나에서 회동하여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書에서 남북예멘은 1990년 5월 26일자로 양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통일선포 후 30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쳐 총선거를 실시하여 單一國家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남북예멘 지도자들은 북예멘의 부족세력과 남예멘의 스탈린주의자 및 사우디 아라비아가 統一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원래 예정일보다 빠른 1990년 5월 22일 남예멘 수도 아덴에서 통일을 선포하였다. 통일 후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새 헌법에 대한 國民投票는 예정보다 늦은 1991년 5월 17일 실시되었으며, 투표자 98.3%가 새 헌법에 찬성하였다.

### 3. 統一過程에 대한 評價

남북예멘은 20여년간 분단상태를 유지하며 국경분쟁과 統一原則에 대한 合意를 반복해 왔다. 남북예멘이 장기간 분단상태를 유지하며 전쟁과 타협을 반복하게 된 것은 分斷狀況의 特殊性에서 기인하는데 남북예멘 분단상황의 군사적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남북예멘은 軍事力이 취약하여 어느 한쪽도 일방적 승리에 의한 무력통일을 이룩할 능력이 없었고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도 결여되어 있었다.



남예멘은 2만 7천명 정도의 군대를 유지한 반면 북예멘은 3만 6천명의 군대를 유지하였다. 常備兵力의 숫자면에서는 북예멘이 우세하였지만 병력의 질적인 면에서는 남예멘 군대가 우세한 편이었다. 양국의 군대는 각각 소련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유지되었는데 소련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남북예멘군이 勢力均衡을 이루는 한도내에서 군사지원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남북예멘은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수준까지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었다.

둘째, 남북예멘은 소수의 兵力規模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지역에 걸친 국경선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왕래를 통제할 수 없었다.

남북예멘 정부는 主要 道路에 대해서는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였지만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예멘 주민들은 國境 山岳地帶와 항구 등을 통해 비공식적 교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국경을 넘어 인적 왕래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양측이 내란을 겪을 때마다 정치적 망명객과 피난민들이 국경선을 넘어 상대방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로도 쉽게 증명된다. 이같은 남북예멘 주민들간의 非公式的 交流는 남북예멘인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적대적으로 異質化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남북예멘 분단상황의 이같은 특성에 대한 인식은 전쟁과 타협이 반복되는 統一過程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된다.

남북예멘간 統一協商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때까지 남북예멘간의 經濟的 協力은 일정수준 이상의 파급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고, 기본적인 평화공존이 유지되었으나 남북예멘에서 각각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남북예멘간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統一 沮害要因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첫째, 남북예멘 정부는 각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소련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影響力을 무시할 수 없었다.

소련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남북예멘에 經濟·軍事的 援助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남북예멘이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남북예멘의 집권자들이 統一論議를 심도있게 진행하면 소련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남북예멘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거나 집권자에 대한 반대세력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논의를 무산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남북예멘의 집권자들은 장래가 불확실한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政權 安定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북예멘에서는 정치가 불안정하고 정치인들은 권력투쟁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정책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남북예멘의 집권자들은 외세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統一政策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남예멘

에서는 북예멘에 화해적인 자세를 취하는 지도자들이 反動分子 또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세력으로 비난받았고, 북예멘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이 無神論者로 비난받았다. 이같은 권력투쟁은 남북예멘의 평화적 통일을 지연시켰다.

마지막으로, 남북예멘 정부는 인적·물적 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社會勢力을 동원하지 못하였다.

남북예멘 정부는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세력을 결집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북예멘의 경우 部族勢力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통일국가의 민주공화국 이념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

통일에 대한 저해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통일원칙에 대한 승意만을 반복해 오던 남북예멘간의 협상이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 政治·經濟的 變化와 예멘인들의 心理的 變化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남북예멘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蘇聯 對外政策의 변화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이 남예멘 정부에 대해 開放·改革政策을 추진할 것을 권유하며 군사·경제 원조를 줄이자 남예멘으로는 서방진영 및 북예멘과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東西 冷戰構造가 와해되고 남예멘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게 되자 사우디 아라비아도 남북예멘의 통일협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게 되었다.

둘째, 남북예멘 국경지역에서 석유의 발견은 예멘인들의 統一에 대한 認識을 변화시켰다.

예멘의 석유매장량은 북예멘 지역에 10억 배럴, 남예멘 지역에 35억 배럴, 남북예멘의 국경지대에 5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남북예멘은 상호 협력해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石油開發에 따른 예멘인들의 새로운 희망과 통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남북예멘의 통일을 촉진시켰다.

셋째, 남북예멘 정치 지도자들의 과단성 있는 결단이 統一 協商을 타결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석유개발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財政 依存度가 감소하고 부족세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하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였다. 살레 대통령은 民族統一 課業을 완수한 역사적 인물로 남겠다는 개인적 야심에서 통일협상 과정에서 남예멘측에 대해 대담한 양보를 하였다. 북예멘측이 政治權力을 안배하자는 남예멘측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면 남북예멘은 통일에 대한 극적 합의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남북예멘 統一過程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북예멘은 무력통일을 달성할만한 군사력을 갖지 못한 반면 體制能力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이질화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양 지역주민들간에는 적대감이 약했다. 그러나 남북예멘은 평화공존기간 중에도 상호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통일논의는 空轉을 거듭하였다. 남북 예멘이 협조체제를 확립할 수 없었던 것은 남북예멘에서 모두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여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일정책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예멘간 지속적인 대화는 남북예멘인들에게 전쟁을 회피해야 된다는 심리를 구축해 주었고 統一論議의 심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남북예멘의 경우 장기간의 통일협상이 결실을 맺게된 데에는 국제환경변화와 남북예멘의 石油發掘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따라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개입이 철회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예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간섭도 배제되었다. 이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남북예멘의 통일 협상구도가 多者的 關係에서 雙務的 關係로 변함과 동시에 통일정책에 대한 남북예멘 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석유개발은 남북예멘간 利害得失構造를 제로섬 게임(zero-sum-game)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남북예멘은 석유개발로 인하여 통일을 이룸으로써 양측 모두 경제적 번영을 누릴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相互 既得權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타결한 남북예멘 지도자의 결단은 남북예멘의 통일을 촉진시켰다. 즉 남북예멘은 대내외 환경 및 이해득실 구조의 변화 그리고 남북예멘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 등으로 평화적 통일을 조속히 달성하게 되었다.

## 第 V 章 예멘 統一 以後 問題點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 정상은 통일예멘의 國號를 「예멘공화국」으로 선포하고, 30개월 동안 과도 중앙정부가 통일예멘을 통치한다고 발표하였다. 통일을 선포할 당시 예멘인들은 통일국가가 석유 생산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國民和습을 통하여 정치적 민주화도 성취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예멘간에 1:1로 대등하게 권력이 배분된 過渡政府는 비능률적으로 운영되었고, 남북예멘 지역간 이질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통일에서 오는 부작용을 극복하기도 전에 걸프戰이 발발하자 통일예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좌절되었으며, 이 여파로 예멘공화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예멘은 1993년 4월 27일 總選을 통해 신정부를 구성하였지만 현재까지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의 통합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 1. 政治統合 實態와 問題點

統一憲法에 의하면 예멘공화국의 國教는 이슬람교이며 이슬람 율법은 모든 법의 주요한 근원이다. 통일예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국민투표와 총선을 통하여 주권을 직접 행사하고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통해 主權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sup>1)</sup> 통일예멘은 이같이 이슬람 율법과 民主主義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삼권분립제도에 입각한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통일예멘의 헌법은 남예멘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맑스-레닌주의 이념을 배제하였지만, 保守的 王政이 지배하고 있는 아라비아반도에서는 국민주권원칙 자체가 과격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일예멘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실험하게 되자 사우디 아라비아 등 보수적 아랍국가들은 民主化運動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예멘을 경계하게 되었다.

통일예멘의 國家組織은 대통령평의회(Presidential Council), 의회, 국무원, 사법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가 최고통치기관인 대통령평의회는 統一議會에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부통령 및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過渡 中央政府의 대통령평의회 의장(대통령)직은 前북예멘 대통령 살레가 맡고 있으며 부의장(부통령)직은 前예멘사회당 서기장이었던 알비드가 맡고 있다. 3인의 위원에는 前북예멘 국회의장 알아라시(Quadi Abdul Karimal-Arashi), 前예멘사회당 부서기장 모하메드(Salem Saleh Mohamed), 前북예멘 총리가니(Abdul Aziz Ghani)가 임명되었다.<sup>2)</sup> 따라서 대통령 평의회는 북예멘 출신 3인과 남예멘 출신 2인으로 구성되었다.

1) 예멘공화국 憲法 全文 제1조부터 제5조까지 政治基調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II」(서울: 統一院, 1991), p. 134.  
2) 統一院, 「예멘 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서울: 統一院, 1991), p. 18.

대통령평의회는 부족대표와 저명인사로 구성된 諮問會議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문회의는 북예멘 출신 24명, 남예멘 출신 21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에 의하면 議會는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4년의 의원들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었다. 過渡政府는 다음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북예멘 국회의원 출신 159명, 남예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출신 111명, 그리고 각 정치단체 대표 31명으로 임시의회를 구성하였다. 議會 議長으로는 전남예멘 총리 겸 정치국원 이었던 노만(Yessin Saeed Noman)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으로는 북예멘 국회의원 출신 3명이 선출되었다. 의회의 17개 分科委員會 위원장은 북예멘 출신 10명과 남예멘 출신 7명으로 구성되었다.<sup>3)</sup>

과도정부의 內閣은 총리 1명, 부총리 4명, 장관 34명으로 구성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였다. 前남예멘 최고인민회의 간부회의 의장 알아타스가 총리에 임명되고, 남북예멘 출신 각각 2명이 부총리에 임명되었다. 長官職은 북예멘 출신 19명, 남예멘 출신 15명에게 배분되었다. 남북예멘의 통일 담당부처는 폐지되고, 총리실이 과도 기간중 통일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헌법상 군대는 대통령평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國防委員會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sup>4)</sup> 과도정부하에서 살레 대통령이 통합군

3) 外務部, 「예멘共和國概況」(1991. 5), p. 26.

4) 예멘공화국 憲法 第24條 참조. 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II」, p. 137.



사령관을 겸직하였지만 국방장관과 참모장직은 前남예멘 국방 장관과 前북예멘 참모장이 각각 차지하고 국방부와 통합군 사령부의 요직을 남북예멘 출신에게 절반씩 안배하였다. 總兵力規模는 6만5천여명으로 통일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sup>5)</sup> 노후장비는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등 인접국가에 매각하였다. 과도정부는 해군을 아덴으로 집결시키고 일부 야전군을 남북간에 재배치하는 등 통합을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과 군인들이 軍統合의 세부적 사항에 관해서 완전한 合意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부대들은 통일 이전의 남북예멘 군복을 각기 착용한 상태에서 현지에 계속 주둔하였다.<sup>6)</sup> 남북예멘 지역의 야전군은 제도상으로는 통합된 國防部와 司令部의 지휘·감독을 받게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통일 이전의 지휘계통을 따라 움직였다. 이같이 과도기간 중 軍統帥權이 일원화되지 못한 이유는 예멘사회당이 정치적 고려에서 남예멘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예멘의 정치통합 방식은 남북예멘 정부를 1:1의 동등한 비

5) 軍兵力에 대한 예멘정부의 공식발표는 6만5천여명이나, 現地 예멘인들은 통일예멘의 병력규모는 15만의 正規軍과 15만의 예비군 및 部族私兵을 합하여 총 30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과도기간 중 예산 사정상 단일 군복이 지급되지 못하여 통합된 부대와 재배치된 부대의 군인들도 통일전의 남북예멘 군복을 각기 착용하고 있었다. 統一院, 「예멘 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 p. 23.

7) 柳志鎬, 「예멘統一이 韓國에 주는 教訓」(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3), pp. 27~28.

중을 주고 통합한 것으로 對等統合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8)</sup> 대등통합 방식을 택함에 따라 남예멘측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政府組織을 기계적으로 합병함으로써 통일정부의 조직은 비대화되는 한편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과도정부의 政策은 원래 남예멘 출신 관료들이 제시한 행정원칙에 따라 수립·집행되게 되었으나 남북예멘 출신 관료들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게 되었고 일단 수립된 정책은 담당 관료들의 便宜에 따라 집행되었다.<sup>9)</sup>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정부에 제대로 침투되지 못하게 되었다. 統一예멘은 관료들의 책임감 결여로 행정의 비능률을 겪고 있는 한편 정당 및 사회단체의 난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통일후 북예멘의 국민회의는 1,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準議會의 性格을 버리고 대중정당체제로 개편하였고, 남예멘의 예멘사회당은 맑스-레닌주의 전위당이라는 강령을 삭제하고 社會人民主義를 표방하였다.<sup>10)</sup> 국민회의와 예멘사회당은 차기 총선까지 잠정적으로 연합하여 집권당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외에 30여개의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8) 統一院, 「예멘 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 p. 1.

9)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駐예멘 대사관에 근무하는 李定裁 참사관과의 11월 28일 면담한 내용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다.

10) 外務部, 「예멘共和國概況」, pp. 26~27.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多元主義的 民主政治는 남북예멘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통일정부의 지도층은 과도정부에 대해 정통성을 부여하고 분열된 예멘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選舉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합의와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에서 民主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통일에 따른 政治的 民主化의 실험은 걸프전쟁이 돌발하자 기대했던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 집단간의 갈등을 표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통일 정부는 먼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비난하고 美國 등 외국군이 아랍인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랍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예멘인들은 아랍국가 간의 妥協에 의해 전쟁이 종결될 것을 희망하는 입장이었다. 예멘과 이라크간의 전통적 우호관계와 예멘인들의 親이라크적 인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보면 과도 정부는 걸프전쟁에 비교적 中立的 立場을 고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1)</sup> 그러나 사회주의자들과 합작으로 이루어진 통일과 통일후 민주화 실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통일 정부가 연합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멘에 대해 경제

11) Eric Watkins, "The shadow of suspicion," *The Middle East* (March 1991), p. 25.

적 재재를 가하는 한편 民主的 政治發展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보수적 부족세력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財政的 支援을 하며 반정부운동을 선동하였다.

1991년 1월 하시드 부족연맹 총수 아흐말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재정적 지원과 모슬렘 형제당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개혁당」(al-Islah: 이슬라흐당)을 설립하고 反政府運動을 전개하였다. 「이슬람개혁당」은 과도정부의 무능력과 관료들의 부패를 비난하고 통일정부는 이슬람 교리의 원칙을 고수하라고 주장하였다. 「이슬람개혁당」의 주장에 의하면 이슬람을법은 모든 法의 주요 근원이 아니라 ‘唯一한 根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개혁당」에 소속된 보수주의자들은 통일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적대심을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의 政治活動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치집단간의 갈등이 폭력적 형태로 표출되었다.

總選을 앞두고 북부지역에 지부를 신설해 가던 「예멘사회당」은 곳곳에서 의문의 테러를 당했다. 1991년 좌익계열 「예멘노동자연맹」(Yemeni Unionist Alliance)의 지도자가 암살되자 社會主義者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슬람개혁당」 지도자의 아들에 대한 암살을 기도하는 등 정치적 테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확대되었다. 1992년 중반까지 총리, 의회 대변인, 대통령평의회 위원 등에 대한 15건의 暗殺이 시도되어 총리의 동생이 암살당하고, 법무장관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치적 폭력이 빈번해지자 사나를 떠나 아덴에서 몇 달간 피신하고 돌아 온 副統領 알비드는 대통령이 암살자 발본색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sup>12)</sup>

한편 인구비례에 의해 선거구가 분할된 議會選舉에서 사회당 후보의 당선율이 저조하면 국민회의가 예멘사회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또는 예멘사회당과의 제휴를 폐기하고 保守主義 勢力과 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3)</sup>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민회의도 계속 집권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勞動組合의 파업을 선동하였다. 국민회의와 예멘사회당간의 연합은 보수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여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집권당 내부의 不和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켰다.

통일정부는 30개월의 과도 기간이 종료되는 1992년 11월 22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고 新政府를 출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총선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1993년 4월 27일에야 실시되었다. 총 301명을 선출하는 選舉에서는 여성 50명을 포함해 총 3,627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총선은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 곳곳에서 暴力事態가 발생하였으며, 사나

12) "Yemen: Mystery Killers," *The Economist* (October 10, 1992), p. 46.

13) Eric Watkins, "Yemen Perseveres with Democracy," *The Middle East* (May 1992), pp. 20~21.

북쪽에 있는 하자시에서는 이슬람개혁당 후보가 예멘사회당 사무소에 로켓포를 발사하여 25명이 사망하고 50명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높은 文盲率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은 선거에 무관심하였으며, 50%에도 못미치는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선거가 폭력적 양상을 띠고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開票가 지연되었으며 298석에 대해서만 당선자가 확정되었다.

개표 결과 총 득표수는 국민회의 85만, 예멘사회당 65만, 이슬람개혁당 50만 정도에 이르렀으나, 실제 議席數는 국민회의 121석, 예멘사회당 56석, 이슬람개혁당이 62석을 차지하고 중소정당이 총 12석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47석은 후보자의 75%를 차지했던 무소속 출마자들이 차지하였다. 개표 후 살레 대통령은 예멘사회당과 聯政을 계속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슬람개혁당과 保守主義者들은 선거가 부정으로 치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반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였다. 보수주의자들의 반정부 시위로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 당국은 軍警兵力을 수도 사나에 진입시키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슬람개혁당을 배제하고는 政治的 安定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집권당 연합은 이슬람개혁당과 타협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신정부는 閣僚職을 정당별로 안배하여 국민회의 11명, 예멘사회당 9명, 이슬람개혁당 6명, 바스당 2명, 나세르당 1명 등

총 29명의 長官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sup>14)</sup> 신정부는 행정개혁과 부패척결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정을 쇄신하고 地方自治制度를 도입하여 지역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정부의 權力構造와 정책방향에 대해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간에 견해차이가 커지면서 예멘 정국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평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憲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예멘사회당 소속의원들은 대통령평의회를 존속시킬 것을 주장하며 改憲보다는 지도층 내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예멘사회당간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이슬람개혁당은 국민회의와 밀착되어 현재 예멘의 정치적 상황은 예멘사회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간에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2. 經濟統合 實態와 問題點

통일예멘의 경제는 이슬람교의 社會正義 理念에 입각하여 사회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며,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기본적인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공공의 이익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배상을 제외하고는 私有財産權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15)</sup> 아울러 아랍 전통과 예멘 환경에 적합한 사회주

14) 柳志鎬, 「예멘統一이 韓國에 주는 教訓」, pp. 26~27.

15) 예멘공화국 헌법 제6조는 國家經濟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統一院, 「예멘統一關係 資料集 II」, p. 134.

적 사회·경제 질서를 창조해내기 위해 자립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原則을 채택함으로써 통일에멘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던 남예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통일에멘이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신봉하게 된 것은 아니다. 통일에멘은 私有財產權을 인정하는 민간경제 영역과 이슬람교의 사회주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경제 영역이 공존하는 混合經濟體制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정부는 5개 경제부처, 3개 국책은행, 7명의 기업가를 위원으로 하는 「경제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예멘의 經濟統合을 지도·감독하였다.<sup>16)</sup> 통일정부는 과도 기간중 남예멘 디나르(Dinar)貨와 북예멘 리알(Rial)貨를 함께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sup>17)</sup> 남예멘 지역의 사유화 정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실시되었다. 즉 소규모 공장과 토지는 私有化시키지만 외국인 소유 토지나 대지주 토지에 대해서는 國有化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통일정부는 私有財產制의 추진과 아울러 남북예멘 주민들의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예멘의 賃金을 북예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投資法을 개정하여 대외개방을 통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16) 統一院, 「예멘 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 p. 21.

17) 디나르貨와 리알貨의 교환비율은 1:26으로 통일을 전후하여 화폐가치의 변화가 없었다.



통일정부는 남예멘 지역의 경제를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管理能力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유화되었던 기업과 토지를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술탄과 부족장 등 前所有者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재정 형편상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통일 직후 예멘경제는 많은 부작용을 겪게 되었지만 예멘인들은 석유수입으로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는 걸프전이 돌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걸프전이 발발하자 이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국들에 대한 예멘의 輸出이 감소되었다. 전쟁에 패배한 이라크는 경제난으로 예멘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하게 되고<sup>18)</sup>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미국 등은 예멘정부가 연합군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經濟的 支援을 철회하였다. 미국은 경제원조팀을 철수하고 1991년에 2천2백만달러에 달하던 經濟援助를 1992년에는 3백만달러로 축소하였다.<sup>19)</sup> 1991년 9월에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예멘에 대해 경제원조와 借款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멘 근로자 약 100만명을 강제귀환시켰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거주하던 근로자와 가족들이 귀환함에 따라 이들이 매년 송금하던 4억

18) 이라크는 아덴 정유공장에 原油를 공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멘産 과일과 야채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라크는 걸프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예멘에 대해 7천만불의 원조를 약속하고 있었는데 敗戰으로 인하여 원조계획을 취소하였다. 李定裁, “예멘 그 統一의 論理와 當面 諸問題,” 「北韓」통권 244호 (1992. 4), p. 93.

19)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 p. 16.

달러에 달하는 外貨 獲得源이 없어지는 반면, 전체인구가 약 8% 증가하고 失業率이 급증하였다. 걸프전쟁의 여파로 예멘은 총 18억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이와 함께 1990년 통일을 계기로 34%로 상승하였던 인플레이션은 1991년 9월 해외 근로자들의 귀환과 함께 100%로 급상승하였다. 그리고 貨幣價値도 하락하여 리알貨와 달러貨의 비공식 교환율은 1990년 9월 14:1에서 1991년 9월 35:1로 상승하였다. 통일정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개발 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부터 3천 3백만달러의 긴급 경제복구자금을 융자받는 한편, 借款外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아덴을 自由貿易地帶로 선정하고 항만시설 등을 정비하며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통일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함께 石油開發에 박차를 가하여, 통일 이후 하드라마우트(Hadhramaut)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과 대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하였다. 통일정부는 석유채굴권을 외국기업에 양도하여 財政收入을 늘리는 한편, 마립과 사브와지역에서 석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1992년 매일 23만배럴을 생산하던 석유를 1993년 9월 이후 30만 배럴로 확대 생산하고 있는데, 예멘정부는 1995년에는 하루 평균 50만배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1)</sup> 통일정

20) Watkins, "Yemen Perseveres with Democracy," p. 20.

21) Barclays Bank Economics Department, "Yemen," *ABECOR Country Report* (April 1992) pp. 3~4.

부는 석유개발 이외에 製造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술 노동력의 부족과 원자재의 부족으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예멘정부는 經濟危機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걸프전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다.

### 3. 社會統合 實態와 問題點

統一憲法은 국가는 헌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되는 과학연구, 문학, 예술 및 문화적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憲法은 모든 국민의 勞動組合 등 사회단체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sup>22)</sup> 남북예멘간 사회·문화통합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슬람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예멘의 사회·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예멘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社會·文化的 異質性이 상존하고 있고, 경제 위기에 따른 생계비 상승과 소비품 부족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이슬람 정신이 사회·문화 통합의 기초가 됨에 따라 남예멘

22) 예멘공화국 헌법 全文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社會 및 文化基調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 국민의 基本權과 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II」, pp. 136~139.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북예멘지역은 家族制度에 관해 1夫 4妻制를 용인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가치관을 장려해 온 남예멘에서는 1夫 1妻制를 原則으로 하였다. 남예멘 사회주의 정부는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남성 근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통일후 이슬람 전통을 憲法理念으로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은 제한받게 되었다. 이에 남예멘지역 여성들은 전과 같은 신분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女權問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남예멘 사회주의 정권은 카트 소비를 억제하는 반면, 飲酒를 용인하여 맥주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예멘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음주관습을 금지하고 대신 카트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카트는 하루 流通量이 5백만달러어치나 되고 가족수입의 30~40%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으로 예멘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정부는 이를 經濟·社會 發展의 저해요소로 보고 카트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고자 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sup>23)</sup> 통일정부의 카트사용 억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과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는 억제되는 반면, 社會·經濟的

23) 1993년 예멘 총리실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카트를 씹는 습성때문에 예멘 근로자들은 1년동안 총40억 노동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Habeeb Salloum, "A Habit Hampering Progress," *The Middle East* (March 1993), pp. 43~45.

發展에 더욱 해로운 카트 소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일후 首都 사나는 정부기구와 의회 규모가 거의 2배로 늘어난데다 많은 남예멘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事務室과 住宅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함께 도시 생활의 활성화는 言論活動을 촉진하여 통일전 30여개에 불과하던 신문이 통일 후 40여개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걸프전쟁 이후 해외 근로자들이 귀환하자 사나 인구는 더욱 증가하여 80만명을 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각한 주택난과 아울러 食水 및 電力 등의 부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sup>24)</sup>

또한 통일 직후 낙관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었다. 통일후 남북예멘지역을 통괄하여 종합대학 2개, 교육대학 9개, 특수 기술학교 24개 등 총 9,400개 각급 학교에 5만 2천여명의 교사가 있다. 統一前 북예멘 정부는 외국인 교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었으며, 쿠웨이트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補助金으로 교사의 월급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걸프전쟁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 경제원조가 단절되자 통일정부는 교사들에 대한 봉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

24) Edmund O'Sullivan, "Can urbanization be contained," *MEED* (July 17, 1992), p. 3.

따라 外國人 教師 3만여명이 해외로 이주하였다.<sup>25)</sup> 그 결과 북예멘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통일을 계기로 정부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되자 부족 세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部族長들은 여전히 자기 부족에 대해 司法權을 가지고 있고 私兵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정부는 부족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예멘이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루자 부족세력은 통일 자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人口數에서 북예멘의 1/4 정도 밖에 안되는 남예멘이 정부요직을 북예멘과 동등하게 차지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걸프전쟁을 계기로 부족세력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財政的 支援을 받아 「이슬람개혁당」을 설립하고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였다.<sup>26)</sup>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곳곳에서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고 주민들의 반정부 폭동을 사주하였다.

북예멘 지역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이슬람을 모든 法의 유일한 근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며 소요를 일으키자 남예멘 지역에서도 사회집단의 시위가 빈발하게 되었다. 남예멘 주민들은 社會主義 教育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슬람 문화가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통일예멘에서 教育水準이 제일 높은 아덴 주민들은 북부 보수주의자들의 불

25) Hamalainen, *Yemen*, pp. 30~31.

26) John Myles, "Yemen's Growing Pains," *Middle East International*, no. 438 (November 20, 1992), pp. 18~19.

합리한 태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남예멘 주민들은 통일 직후 통일에 따른 社會·經濟的 副作用을 북예멘 주민들보다 더욱 심하게 겪었지만 통일정부에 대한 불만을 대체로 자제하는 편이었다. 남예멘인들의 反政府 示威는 걸프전쟁의 여파로 경제난이 심해지고 보수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폭력이 빈번해지면서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 들어 아덴 中産層들은 물가안정과 생활 필수품 보급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빈번히 전개하였다. 1992년 3월 1일 남예멘 출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勞動組合總聯盟」은 임금 인상과 물가단속 및 실업자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단행하였다.<sup>27)</sup> 한편 아덴과 사나 대학 교직원들도 이들에 동조하여 3월 14일부터 파업을 일으켰다. 이들의 파업은 예멘사회당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되고 勞動者들의 파업이 빈번해졌다.

1992년 12월 9일 예멘 중부에 위치한 도시 타이즈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항의하던 시위가 폭동으로 발전되어 100여 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같은 반정부 시위,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주민들의 폭동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악화된 경제사정과 물가안정에 있지만 이와 함께 남북예멘인들이 相互 敵對感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에서도 그 이유를

27) Watkins, "Yemen Perseveres with Democracy," pp. 20~21.

찾을 수 있다. 통일예멘의 신정부가 行政改革 目標를 달성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면 사회집단들의 소요 사태는 확연히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經濟 狀況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4. 統合 實態에 대한 評價

남북예멘은 통일을 달성한 직후 국제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들어 아직도 통일예멘의 발전방향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의 統合實態에 관해 균형잡힌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점을 인식하고 예멘의 통일 이후 문제점들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멘의 정치통합은 남북예멘 주민들간에 政治的 共同體意識이 형성되기 이전에 남북예멘 지도층이 상호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統一 過渡政府는 형식상 단일 정치구조를 형성하였지만 남북예멘 출신 관료들이 동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정부는 실질적으로 연립정부의 성격을 지녔다. 과도기간 중 남북예멘 출신 정치가들은 상호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대다수 예멘인들은 통일정부에 대해 政治的 一體感을 느끼지 못하였다. 과도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민주적 정치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선거 등을 통하여 정통성을 확립하



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를 기대하였으나 사회집단들의 정치 참여의 폭발로 정국은 더욱 불안해졌다.

총선 이후 정부는 그때까지 권력배분에 소외되었던 집단들을 포섭하여 聯立內閣을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新政府도 여전히 과도정부적인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폭력수단에 대한 國家의 獨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8)</sup> 즉 남북예멘 군대의 통합이 완결되지 않아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과 부족세력이 각기 독자적으로 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新政府의 權力은 사회집단간의 세력균형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정부는 정치통합을 완결짓지 못하고 있지만 대다수 예멘인들이 再分斷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은 단독정부를 수립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예멘통일을 경계하는 外部勢力이 개입하여 분열을 획책하지 않는 이상 예멘이 다시 남북으로 분리되는 사태는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sup>29)</sup>

예멘의 政治統合이 남북예멘 주민들간에 정치적 연대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법적·제도적으로 달성되어 국민들의 정치적 응집력이 약하듯이 경제통합도 남북예멘 경제가 기능적으로

28) 이 부분은 前 駐예멘 大使(1990.3.14~1993.5.24)를 역임한 柳志鎬 대사와 1993년 9월 4일 면담한 내용에 입각하여 기술한 것이다.

29) 통일예멘의 現在 危機狀況에 대한 평가는 柳志鎬 大使와 1993년 12월 7일 면담한 내용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다.

결합되기 이전에 制度的인 側面에서만 달성됨으로써 경제의 내부 결속력이 약하다. 남예멘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체제의 자율화와 재산권 사유화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전 남북예멘은 經濟制度의 이질성이 심하지 않았고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남북예멘 지역이 단일 경제체제로 통합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걸프전쟁의 여파로 높은 물가와 실업율에 시달리고 있는 統一政府는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통합에 관한 것보다 안정과 성장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자본과 기술이 결여된 예멘으로서는 해외 투자유치와 석유개발로 경제가 성장해야만 남북예멘 지역 경제의 相互 補充性이 강화될 것이다.

통일예멘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보다 경제 효율성에서 우세한 시장경제체제를 통합목표로 채택함으로써 경제통합 목표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社會統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보다 합리성이 결여된 이슬람 정신을 통합목표로 선정함으로써 남북예멘간 社會·文化統合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남예멘 지역은 북예멘 지역보다 주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은 편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있다. 남예멘의 合理的 文化가 북예멘 지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특히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서 두드러진다. 북예멘 여성들은 남예멘 여성과 같이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의 權益保障을 원하는

한편 북예멘 지역 근로자들은 남예멘 지역 근로자와 합세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富의 合理的 分配를 요구하고 있다.

政治的 一括妥結 方式에 의해 성립된 통일정부는 과도기간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의 통합을 완결하고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단일 정부를 확립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과도기간 중 각 부문의 統合水準은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걸프전쟁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過渡政府가 경제적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통합방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예멘 관료를 그대로 흡수한 정부는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한편 중요한 政策事案에 관해서는 남북예멘 출신 정치가들의 이해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행정적 결함은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경제상황의 악화는 社會的 昏亂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사태는 새로운 聯立內閣의 출범으로 정치가 안정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신정부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간에 불화가 심화되어 經濟·社會的 不安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第Ⅵ章 南北韓 統一에 대한 示唆點

예멘과 한국은 지정학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아라비아 半島에 위치한 남북예멘의 면적은 남북한의 2.4배에 달하는 반면, 인간이 살기에 좋지 않은 열대지대의 자연환경 탓으로 남북예멘 인구는 북한 인구의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韓民族은 천년이상 單一國家를 형성하여 살아 왔고,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가 되지 않는다. 한편 예멘은 중세기 동안 단일국가를 형성했던 시기보다 분열된 시기가 더 많았고, 외세의 영향으로 백년 이상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예멘인들이 남북으로 각기 獨立國家를 수립하고 이념적으로 대립한 지는 이십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지리적·역사적 배경의 차이는 예멘과 한국의 分斷 環境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지적해 준다. 그러나 남예멘과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북예멘과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장기간 軍事政權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예멘인과 한국인 모두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지만 강한 民族的 一體感을 유지하며 동일한 민족의식에 의해 체제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위에서 예멘과 남북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문제점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남북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대비책에 대한 示唆點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1. 南北예멘과 南北韓의 類似點과 差異點

예멘과 남북한은 單一民族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전략요충지로서의 地政學的 位置로 인한 잦은 외침 때문에 강한 민족의식을 유지하여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멘과 남북한은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전쟁을 겪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남예멘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북예멘과 남한은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예멘과 남한의 政治的 類似點은 정치이념에 있다가 보다는 장기간 군부통치를 경험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남예멘과 북한은 사회주의 一黨獨裁體制를 수립하여 북예멘이나 남한보다 빨리 사회개혁과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예멘과 북한은 다같이 초기단계에서 일정한 수준의 개혁과 성장을 달성한 후 인간의 자발적 의지를 부정하는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경제적 위

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북예멘과 남한은 건국초기에 남예멘과 북한에 이념적으로 수세에 몰린 듯이 보였고 정치적으로도 한층 불안하게 보였다. 그러나 북예멘과 남한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함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 결과적으로 북예멘과 남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택한 상대방보다 경제력과 정치안정 면에서 앞서게 되었다.

統一政策에 있어 남예멘과 북한은 각각 상대방 국가에서 社會主義 革命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무력통일과 통일전선 노선을 택한 남예멘과 북한은 정부차원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상대방의 反體制勢力들을 선동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한편 북예멘과 남한은 민족사의 正統性이 자기편에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건국초기 무력통일 이외에 뚜렷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 급속한 무력통일보다는 平和共存을 유지하고 대화를 지속하여 타협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예멘과 남한은 상대방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政府次元의 對話를 추진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택하였다.

이와 같은 예멘과 남북한의 유사점은 예멘 통일사례로부터 南北韓 統一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예멘과 한국간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類似點만을 강조하다 보면 예멘의 경험이 기계적으로 남북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예멘 경우와 남북한 경우와의 유사점과 아울러 상이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과 예멘의 분단환경으로서 外勢의 性格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美·蘇間 냉전 초기에 분단되어 각각 미국과 중·소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미국과 소련 및 중국간에는 기본적으로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대결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남북한은 국제적 냉전구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더욱이 한반도 周邊 強大國들은 남북한간 화해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다.

한편 예멘의 경우 북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 등 보수적 아랍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한편, 남예멘은 蘇聯,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쿠바, 그리고 사회주의 지향적인 아랍국가들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은 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입장을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남북예멘간의 문제에 直接的인 介入을 회피하였다. 예멘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적인 군사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예멘의 軍事力은 일정한 수준에서 동결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남북한과 달리 초강대국의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받지 못한 남북예멘은 長期戰을 치를 능력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이 발발한 경우 아랍민족주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중재로 쉽게 휴전에 임하였다.

둘째, 남북한 정부는 남북예멘 정부보다 사회에 대해 강력한 統制力을 유지하여 왔다.

남예멘과 북한은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政權의 安定性 및 社會 統制力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예멘의 경우 국가는 사회세력의 잠재적 도전을 억제할 만큼 강했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완전히 개조할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였으며,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아 빈번하게 政權交替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공산당은 자율적인 사회집단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철저하게 개조하였다. 김일성은 공산당내의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一人獨裁體制를 공고히 하여 정권수립 이후 정권 교체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북예멘과 남한은 民主共和國을 헌법상의 국가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북예멘은 이슬람을 모든 법률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남한은 西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북예멘과 남한에서는 장기간 군사정권이 지속되었으나, 북예멘의 경우 부족세력이 정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前近代的인 국가가 존속된 반면, 남한의 경우 강력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추구하여 開發獨裁型 國家의 성격을 띠었다.

셋째, 남북한간의 經濟力 差異는 남북예멘간의 경제격차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다.

남한과 북한은 북예멘이나 남예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經濟成長을 이루었다. 그러나 남한 경제는 급속한 고도성장을



장기간 지속하여 현재 先進 産業國家의 수준에 이른 반면, 북한 경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심한 沈滯現狀을 보이고 있다. 남북 예멘의 경우 북예멘의 경제력 수준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양국 모두 貧困을 타파하지 못하였고 국경지대 유전의 공동개발이 양국 경제성장의 관건으로 여겨질 정도로 유사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넷째, 社會·文化的으로도 남북한은 남북예멘보다 훨씬 더 이질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은 사회집단에 대해 강한 統制力을 행사하고, 대립되는 이념 및 경제제도를 확립해 놓았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주민들의 왕래를 단절한 채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켜 왔다. 반면 남북예멘의 경우 남예멘이 영국 식민지를 겪으면서 社會·文化的 差異를 지니게 되었지만, 영국 식민지 문화의 유산은 수도인 아덴 지역에만 한정되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傳統文化가 상존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 이후에도 남예멘 사회를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개조하려는 사회주의 정부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예멘의 정치 이념과 법률 등 上部構造는 사회주의화 되었지만 민중들은 여전히 이슬람을 국교로 신봉하며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남북예멘은 남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社會·文化的 同質性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 2. 統一過程에 대한 示唆點

예멘 통일은 대내외적 統一 促進要因이 沮害要因을 점차 압도하면서 달성되었다. 따라서 남북한도 예멘 경험을 교훈 삼아 통일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촉진요인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예멘 統一過程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예멘의 對外關係에 관한 분석은 남북한이 주변 강대국들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남북예멘간 統一論議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랍 형제국들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남예멘은 소련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었지만, 북예멘은 소련과 정상적인 外交關係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예멘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 아랍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었다. 그 결과 남북예멘은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변 아랍국과 소련의 예멘통일에 대한 不信感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남북한도 각각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 정치·경제적 유대를 형성하여 남북한 통일이 이들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획득하여야 平和的 統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예멘의 장기간의 통일협상 과정은 남북한이 평

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實體를 인정하고 상대방 체제에 대한 分裂戰略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북예멘에서는 政權 擔當者가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의 성격이 변했다. 남예멘에서는 강경파들이 집권할 때는 북예멘의 반체제 세력을 선동하며 혁명노선을 강화한 반면 實用主義者들이 집권할 때는 북예멘 정부와 협상을 통해 평화공존을 추구하였다. 한편 북예멘은 남예멘 건국 초기에는 社會主義 政權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반정부 세력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였으나 점차 남예멘 정부의 實體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였다. 남예멘이 내란을 겪고 있을 때 북예멘은 군사적 도발을 자제함으로써 남예멘 정부는 북예멘 정부에 대해 信賴感을 갖게 되고 통일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남한은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남북한 문제를 政府次元으로 一元化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북한은 통일문제를 사회주의 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협상과 적대적 도발을 병행하는 二重性을 띠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 임하면서도 아직도 남한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남한내의 반체제 세력들을 선동하여 社會主義 革命을 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남예멘과 달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정권교체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統一政策에 있어 남예멘의 경우보다 더욱 경직되어 있는데 북한 지도층도 남북한 현

실을 직시하여 남북대화를 정부차원으로 一元化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예멘의 협상과정은 남북한이 경제·사회분야의 機能的 協力關係와 병행하여 통일원칙에 대한 政治的 妥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남북예멘은 빈번한 國境分爭을 겪었지만 남북한과 같은 철책선으로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남북예멘 주민들은 산악지대, 항만, 사막지대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었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예멘 정부는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한 후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다는 機能主義的인 統一方案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한편 남북한은 휴전선을 경계로 철저히 분리되어 남북한 주민들간에 인적 교류와 경제적 협력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장기간의 분단기간 동안 남북한 주민들은 적대적인 이념으로 무장되어 심한 社會·文化的 異質性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남북예멘의 경우보다 경제·사회분야의 機能的 協力關係를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機能主義 統合理論은 경제·사회·문화 등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은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확대되어 나아간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예멘 통일과정은 政治的 和解가 선행되지 않고는 기능적 협력관계가 심화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남북예멘의 경우 경제·사회·문화 등 非

政治的 領域의 협력관계는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관계에 따라 증대되거나 위축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경제·사회 분야의 기능적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남북예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政治的 信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과 같은 이질체제간의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은 정치영역의 협력이 증대되어야 機能主義 統合理論이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확대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넷째, 남예멘의 개방·개혁이 예멘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은 북한의 開放·改革을 촉구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예멘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소련이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民主化 措置를 취할 것을 권유하며 경제·군사원조를 삭감하자 남예멘 지도층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開放·改革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남북예멘간에는 이념과 체제적 대립이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남예멘의 변화는 남북예멘이 합의에 의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북한도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족 전체의 實質的 利益과 共榮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함으로써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예멘 통일사례는 남북한이 통일과정을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統一方案에 대한 정부간의 합의만

이 아니라 남북한 각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북예멘 정상은 1972년 양국의 통일에 합의한 적이 있고, 그 후 1979년에도 統一過程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간 합의는 남예멘의 사회주의 강경파와 북예멘의 보수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양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統一論議가 중단되었다. 1989년과 1990년 초 남북예멘 지도층은 통일반대 세력의 활동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統一協商을 진행하고 급속하게 통일을 선포하였다. 통일 이후 대다수 예멘인들은 통일 자체는 승인하였지만 통일정부의 理念과 權力配分 樣式에 불만을 품은 보수세력들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예멘의 사례는 남북한도 통일논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고 통일 이후 정치·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國民的 合意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통일방식을 채택하고 통일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3. 統一 以後 對備策에 관한 示唆點

예멘은 政治的 合意에 의해 급속히 통일을 달성한 이후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예멘의 통일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 부문의 부작용은 걸프전쟁이 돌발함으로써 더욱 심화되었는데, 예멘의 統一 以後 각 부문별 문제점들을 교훈삼

아 남북한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예멘통일은 남북한이 통일정부의 權力配分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남북예멘은 통일정부 수립과정에서 국가권력을 남북예멘 출신에게 균등하게 안배한 결과 行政의 能率性이 감소되었다. 남북한도 통일정부를 구성할 경우 예멘의 경우와 같이 어느 한 쪽도 패배감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形式的인 權力按配는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은 예멘과 같이 서둘러서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國家聯合 등을 통하여 과도적으로 두 개의 정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통일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多數黨 中心의 단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은 통일 이후 예멘에서와 같은 정치적 폭력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에 대한 통일정부의 統制權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통일예멘의 정치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과도정부가 폭력수단에 대한 獨占的 統制權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멘의 통일 과도정부는 군의 요직을 남북예멘 출신에게 안배하여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는 군의 통수권을 一元化하였지만 남북예멘의 대부분 부대들은 현지에 계속 주둔하며 기존의 명령계통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군의 명

령체계가 실질적으로 단일화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예멘의 통일 과도정부는 군대적 통합을 완결하지 못한 반면 部族勢力은 독자적으로 무장집단을 거느리고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적 폭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 남북한은 남북 예멘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통합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政治統合을 추진할 경우 예멘의 경우보다 훨씬 심한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 과도기간 중 정치통합의 우선순위를 군대통합에 두고 남북한 군대의 명령체계를 실질적으로 단일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은 經濟統合過程에서 형식적인 평등원칙만을 고집하지 말고 남북한의 실질적 경제력에 기초한 통합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예멘 경제통합의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경제통합을 段階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북한지역에서 상품에 대한 가격이 재화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價格自由化 措置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기업과 토지에 대한 사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체제가 일정 수준이상 동질화되면 화폐통합을 단행하는데 남북한 화폐의 交換比率는 남북한의 실제적인 경제력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最低生計費를 보장하는 것 이외에는 인위적인 통제를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市場經濟 原則을 정치·사회적 안정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은 통일 이후 경제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 통일국가의 경제적 문제점이 단순히 異質經濟體制를 통합하는 데 있지 않고 경제발전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예멘의 經濟統合이 지연된 이유는 단순히 남북예멘지역의 경제적 이질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남북예멘의 경제체제는 공식적 이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실제적인 경제 운영면에서는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 그리고 통일정부의 경제이념도 混合經濟體制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예멘 지역의 경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고도 체제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멘은 통일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며 經濟統合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대외적인 문제로서 걸프전쟁의 여파로 외국의 원조가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국내적인 문제로서 정부의 經濟計劃 能力이 취약하고 상품의 유통체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통일예멘 경제의 제일 큰 문제점은 異質體制間의 統合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과 기술인력의 부족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만성적인 대외중속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어떻게 탈피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은 사회·문화통합 과정에서 생활습성의 이질화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社會·教育政策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統一 以前 남북예멘 사회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북예멘 지역의 주민들은 가족문제, 여성문제, 생활 습성에 따른 이질감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異質化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통일 후 社會的 葛藤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 과도 기간 중 남북한 주민의 인적 왕래를 장려하여 民族의 同質性 回復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단순히 전통적 문화에 회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각지에 사회교육기관 및 직업 훈련소 등을 설치하여 북한주민이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社會·文化的 統合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가치관이 비합리적인 가치관을 압도해가는 형태로 확산되므로 남북한은 사회·문화통합을 원활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회관계에 대한 合理的인 價値觀을 육성해야 한다.

북예멘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을법을 통일정부의 모든 법의 유일한 근원으로 규정하기를 원하지만 家族法과 女權問題에 있어 북예멘 여성이 남예멘 여성을 모방하고 있고 북예멘 근로자가 남예멘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한 주민은 북예멘 주민보다 보수성이 약한 반

면, 북한 주민은 남예멘 주민보다 社會主義 理念이 강하게 주입되어 남북한은 통일 이후 예멘 경우와 달리 보수세력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은 적으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북한지역 주민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남한사회가 아직도 地方色과 階層에 따른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지역적 갈등과 노사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統一過程에서 각기 사회내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회적 규범을 제거하여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部門別 統合은 국제환경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영향을 받으며 성숙되어 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南北韓은 통일 이후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주변국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예멘 지도층은 통일에 대한 주변 아랍국가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려하여 統一協商 過程 중에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특사를 파견하여 예멘통일이 이들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 등으로 부터 통일에 대한 默示的 承認을 얻었다. 그러나 예멘의 통일정부는 걸프전쟁의 돌발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주변국가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전 예멘인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이 對外關係가 악화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간의 통일은 國際的 力學關係 속에서 달성되고 통일 이후 문제 또한 대외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남북한도 예멘사례를 교훈삼아 통일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통일정부가 대외관계에서 자립할 수 있는 內的 力量을 축적해야 한다.

## 第Ⅶ章 結 論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독일, 베트남, 중국, 예멘 등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政治的 理念 對立으로 인하여 민족분단을 겪게 되었다. 그 중 베트남은 약 20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1970년대 중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武力統一을 달성하였다. 독일과 예멘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 온 세계적인 탈냉전의 화해무드에 힘입어 1990년에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현재 한국과 중국만이 민족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南韓 政府는 비인도적인 베트남식 무력통일 방안을 배제하고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을 統一政策의 基調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중간단계를 거쳐 정치적 통합을 완결한다는 3段階 統一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평화적 통일방안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지지를 표명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과 예멘의 統一方式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다.

독일과 예멘을 비교해 본 지식인들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달성된 독일식 통일보다 남북예멘이 타협에 의해 대등하게 통합한 예멘식 통일이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漸進的 統一方案과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부 지식인들은 독일의 경우 남한보다 월등한 서독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심한 副作用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멘식 통일이 독일식 통일보다 남북한 통일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게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한 통일은 남한의 일방적인 統一政策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독일과 예멘의 통일방식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은 독일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히 달성된 것이다. 서독은 강대국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統一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반면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교류를 증진하여 점진적 통일을 이룬다는 機能的 統合方案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채택하였다. 동서독간에 정상회담이 빈번하게 개최되었지만 이들은 통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서독이 동독을 吸收統一하게 된 것은 서독의 통일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동독 사회주의 정권의 급격한 몰락에 의한 결과였다. 독일의 경우 사회·경제분야의 機能的 協力과 실질적 통일 사이에는 연속적인 발전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은 독일통일 사례로부터 단계적으로 政治統合을 이루어 가는 방법을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동독과 같이 내부적으로 급속히 몰락한다면 남한은 북한을 흡수통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독일식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남한의

의도적인 통일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北韓體制 崩壞의 결과일 것이다.

한편 북한이 동독의 경우와 달리 급격히 몰락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남북한은 일종의 예멘식 통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멘式 統一은 국내외적 정치문제가 얽혀 있는 분단국의 경우 어느 쪽도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統一協商을 용이하게 타결짓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예멘식 통일은 국가의 권력배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멘의 통일정부는 요직을 남북예멘 출신간에 1:1로 기계적으로 안배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였다. 비효율적인 통일정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形式的 平等論理에 입각하여 정치권력을 안배한 예멘의 대등통합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방법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주의란 국민 다수의 의사가 政府構成과 政策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권력을 분배한 예멘의 과도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총선 결과 밝혀졌다.

예멘式 統一은 통일을 용이하게 달성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일정부의 비효율성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예멘과 같이 政治的 妥協에 의해 통일을 달성하게 되더라도 통일 이후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統一協商 過程에서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통일 과도 기간 중 군대, 경찰 등 국가의 物理的 強制力을 행사하는 기구들의 통합을 완결지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다수당을 중심으로 단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過渡期間을 종료한다. 남북한이 통일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준수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강력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한국인은 예멘인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합의통일을 달성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 國土統一院. 「分斷國 統合事例 研究」. (국통자 86-7-48). 서울: 國土統一 院, 1986. 7.
- \_\_\_\_\_.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國統政 90-10-69). 서울: 國土統一 院, 1990.
- 白樂晴 編.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1.
- 柳志鎬. 「예멘 統一이 韓國에 주는 教訓」. (公館長 歸國 報告 시리즈 93-8).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 外務部. 「예멘共和國概況」. (執務資料 91-48(중동일)). 1991. 5.
- 統一院. 「예멘 統一關係 資料集 II」. (統政 91-12-79). 서울: 統一院, 1991.
- \_\_\_\_\_. 「예멘 統一過程과 部門別 統合實態」. (南北統合對備 計劃 參考資料 II). 서울: 統一院, 1991. 10.
- Ahmmmed, Imad Aldien Mohammed. *Yemen's Division and Unification in the Perspective of World System Theory*. Master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1991.
- Bidwell, Robin. *The Two Yemens*. Boulder: Westview Press, 1983.

- Brassey's. *The Military Balance 1992~1993*.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2.
- Britannica Book of the Year 1990*.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90.
- Burrowes, Robert D. *The Yemen Arab Republic: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62~1986*. Boulder: Westview Press, 1987.
- Delury, George E. ed. *World Encyclopedia of Political Systems and Parties*. New York: Facts on File Publications, vol. 2, 1987.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Bahrain, Qatar, Oman, the Yemen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no. 1, 1990.
- Europa Publications. *The Europa World Yearbook 1992*. London: Europa Publications Ltd., 1992.
- \_\_\_\_\_.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91*. London: Europa Publication Ltd., 1990.
- Goldschmidt, Arthur Jr. *A Concise History of the Middle East*. Boulder: Westview Press, Second Edition, 1983.
- Hall, Siobhan. *Yemen: The Politics of Unity*. London: Gulf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Gulf

Report Special Issue, October 1991.

Halliday, Fred. *Revolution and Foreign Policy: The Case of South Yemen 1967-198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Hamalainen, Pertti. *Yemen: A Travel Survival Kit*. Berkeley: Lonely Planet Publications, 1991.

Ismael, Tareq Y. and Ismael Jacqueline S.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The Politics of Socialist Transformation*. London: Frances Pinter, 1986.

Kurian, George Thomas. *World Education Encyclopedia*. New York: Facts on File Publications, vol. 3, 1988.

Nyrop, Richard F. *The Yemen Country Studies: Area Handbook Ser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Page, Stephen. *The Soviet Union and the Yemens: Influence in Asymmetrical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5.

Peterson, J. E. *Yemen: The Search for a Modern Stat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 Pridham, B. R. *Contemporary Yemen: Poli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 London: Croom Helm, 1984.
- SIPRI, *SIPRI Yearbook 1990: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Wenner, Manfred W. *The Yemen Arab Republic: Development and Change in an Ancient Land*.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Ziring, Lawrence. *The Middle East Political Dictionary*. Santa Barbara: ABC-CLIO Information Services, 1984.

## 2. 論 文

- 柳志鎬. “南北예멘의 統一.” 「외교」, 제15호, (1990년 9월). pp. 60~68.
- 李定栽. “예멘 그 統一의 論理와 當面 諸問題.” 「北韓」, 통권 244호, (1992년 4월). pp. 86~99.
- Barclays Bank Economics Department. “The Yemens.” *ABECOR Country Report*, (20 April 1990). pp. 1~2.
- \_\_\_\_\_. “Yemen.” *ABECOR Country Report*, (April 1992). pp. 3~4.

- Burrowes, Robert D. "The Yemen Arab Republic and the Ali Abdallah Salih Regime: 1978~1984." *The Middle East Journal*, vol. 39, no. 3 (Summer 1985). pp. 287~316.
- "Oil Strike and Leadership Struggle in South Yemen: 1986 and beyond." *The Middle East Journal*, vol. 43, no. 3 (Summer 1989). pp. 437~454.
- Cigar, Norman. "South Yemen and the USSR: Prospects for the Relationship." *The Middle East Journal*, vol. 39, no. 4 (Autumn 1985). pp. 775~795.
- "Islam and the State in South Yemen: the Uneasy Coexistence." *Middle Eastern Studies*, vol. 26, no. 2 (April 1990). pp. 185~203.
- Dunbar, Charles. "The Unification of Yemen: Process, Politics, and Prospects." *The Middle East Journal*, vol. 46, no. 3 (Summer 1992). pp. 456~476.
- Edge, Simon. "Yemen's problems and promise." *MEED*, vol. 36, no. 13 (3 April 1992). pp. 4~5.
- Gause, F. Gregory III. "Yemeni unity: past and

- future." *The Middle East Journal*, vol. 42, no. 1 (Winter 1988). pp. 33~47.
- Graz, Liesl. "Yemen and Saudi Arabia." *Middle East International*, (August 7, 1992). pp. 14~15.
- \_\_\_\_\_. "Yemen weathers the storm." *Middle East International*, no. 398, (April 19, 1991). pp. 24~25.
- \_\_\_\_\_. "Yemen's pride and poverty: can oil cure all?." *Middle East International*, (February 21, 1992). pp. 16~17.
- Kielmas, Maria. "Yemen: BP in and out." *Middle East International*, (June 12, 1992). p. 14.
- \_\_\_\_\_. "Yemen: A hitch in Nimr's plans." *Middle East International*, (August 21, 1992). p. 15.
- Myles, John. "Yemen's growing pains." *Middle East International*, no. 438 (November 20, 1992). pp. 18~19.
- O'Sullivan, Edmund. "Can urbanization be contained." *MEED*, vol. 36, no. 28 (July 17, 1992). pp. 2~3.
- Salloum, Habeeb. "A habit hampering progress." *The Middle East*, (March 1993). pp. 43~45.

Stanzel, Volker. "Marxism in Arabia: South Yemen twenty years after independence." *Aussen Politik*, vol. 39, (3rd Quarter, 1988), pp. 265~277.

The Economist. "Yemen: Mystery killers." *The Economist*, (October 10, 1992). p. 46.

———. "Yemen: A discomfoting neighbor." *The Economist*, (June 26, 1993). p. 48.

Watkins, Eric. "Yemen: Opening the way." *Middle East International*, no. 412, (November 8, 1991). p. 10.

———. "The shadow of suspicion." *The Middle East*, no. 197, (March 1991). p. 25.

———. "Yemen perseveres with democracy." *The Middle East*, (May 1992). pp. 20~21.

———. "Yemen's riots prompt talk of reform." *Middle East International*, (February 19, 1993). p. 18.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I )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蠻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 事例研究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옐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1-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  
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2. 6.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2. 9. 30)
- 91-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 1~1991.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

## 예멘 統合 事例研究

研究報告書 93-19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

---